

국어, 수학, 영어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가이드북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중 등 교 육 과]



Contents

01

공통편

I.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이란?	7
II. 학습 코칭 교사의 역할 및 유의사항	9
III. 학습 코칭의 절차 및 세부 내용	10
IV.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12
V. 메타인지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19
VI.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방법	25

02

교과편

국어

I. 국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29
II. 수능 국어 영역 과목별 학습 방법	31
III. <2022 수능 예비 문항>으로 알아보는 새로운 문항 유형 학습 방법	33
IV.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영역 이해	38
V. 시험 대비 방법	43
VI. 국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50

수학

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53
I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 사례 Q&A	56
III. 수능 선택과목 소개 및 성적산출방식	76
IV. 수학과 학습코칭 관련 도서 및 사이트 안내	82

영어

I. 영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91
II. 영어과 학습드림코칭 사례 Q&A	94
III. 영어과 교육과정, 수능 출제와 대입 반영	97
IV. 영어 영역별 학습 방법	101
V. 학교 평가와 수능(학력평가) 대비 학습 방법	110
VI. 영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117

03

부 록

I. 국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123
II. 수학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125
III. 영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127

01

공통편

- I.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이란?
- II. 학습 코칭 교사의 역할 및 유의사항
- III. 학습 코칭의 절차 및 세부 내용
- IV.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 V. 메타인지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 VI.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방법

I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이란?



1 코칭[coaching]의 의미

‘코칭(coaching)’이라는 용어는 커다란 사륜마차를 가리키는 ‘코치(coach)’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명확한 지표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mentoring)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언과 해답을 제시하는 컨설팅(consulting), 내면의 상처 치유와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카운슬링(counseling)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일방향적인 소통인 반면, 코칭은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신감과 성취 의욕을 고취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또한 코칭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동기부여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두산백과]

2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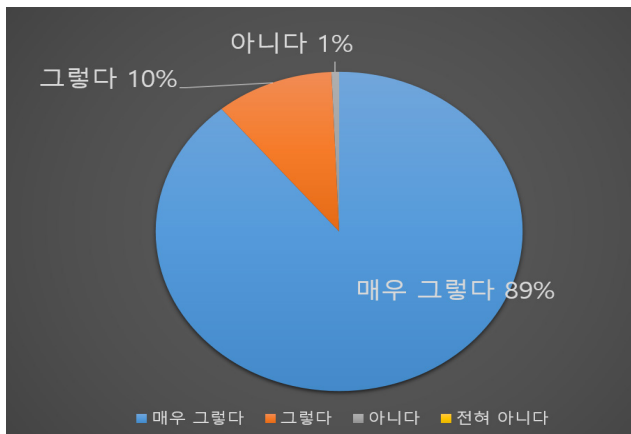
- 대상: 인천 관내 고등학생 중 희망 학생(25개교 300명)
* 지원 대상교: 일반고(자공고 포함)
- 교과: 국어, 수학, 영어
- 방법: 1:1 학생 맞춤형 온/오프 학습드림코칭(zoom 등)
- 내용: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전문적으로 돕는 과정임.
교과별 사전 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 흥미 및 자신감 회복, 올바른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 형성,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교과 연계 진로 탐색 등을 전반적으로 다룸.

3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운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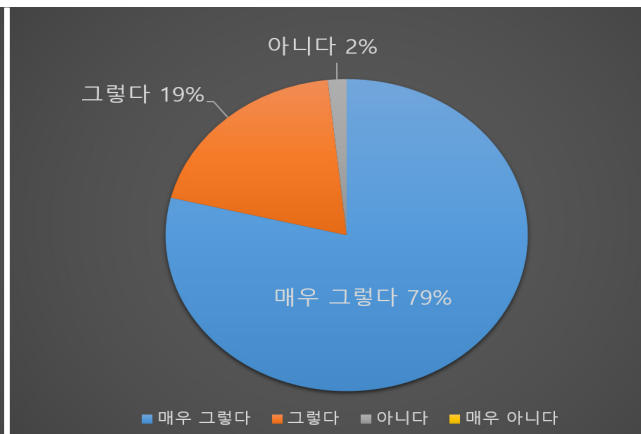
- 2020년도 및 2021년도 1학기에 진행된 학습 코칭의 경우, 참여 학생의 만족도 (97% 이상)가 매우 높았음.
- 이는 학습 코칭이 참여 학생들의 학업 관련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 학습 코칭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과 학습 상담 및 코칭을 통해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 학습 코칭은 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학습 방법이 지닌 문제점 진단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또한 학습 코칭은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학습력 무력감에서 벗어나 학업에 대한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는 장이 될 수 있음.
- 학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학습 코칭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삶의 역량을 키우는 재미있는 교과 교육을 실현함.

<2021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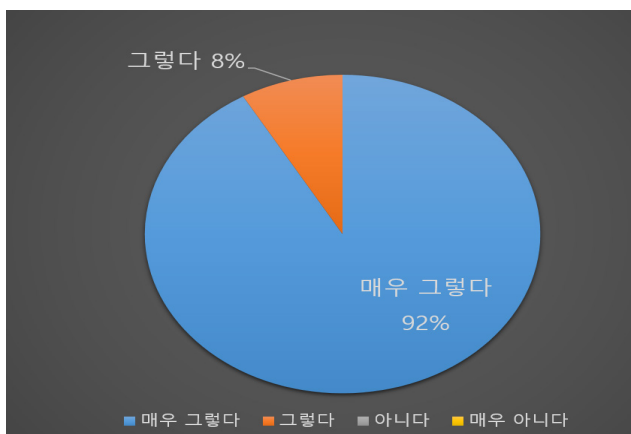
Q1) 자기 이해, 교과 이해력이 향상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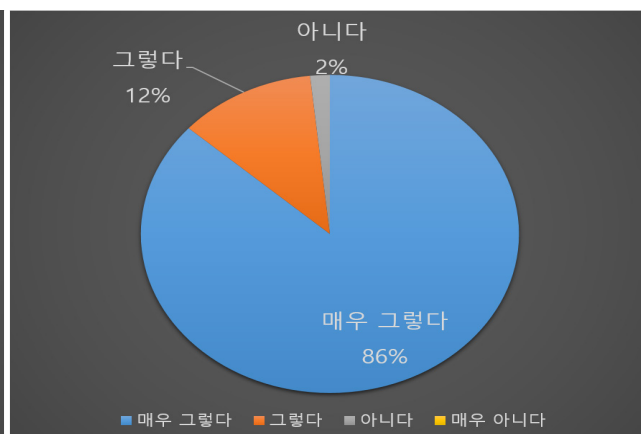
Q2) 교과 흥미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나요?



Q3) 코칭선생님이 성실하고 정성껏 상담해주셨나요?



Q4) 학습 코칭을 재희망하거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출처: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2021. 8.), 대상: 참가 학생 295명-

II

학습 코칭 교사의 역할 및 유의사항



1 학습 코칭 교사의 역할

- 학습 코칭단 사전 협의회를 통해 학생 이해 자료 목록 정비 및 학습 코칭 진행을 위한 사전 연수 참여
- 학습 코칭 희망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학습 코칭 희망 학생과의 학습 코칭 일정 조율
- 학습 코칭 희망 학생 및 코칭 희망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 이해 자료 분석
- 학생이 지닌 학업 관련 고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문제 상황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 코칭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 역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칭 학생과 진행한 학습 코칭 내용을 코칭 학교의 담당 교사와 공유
- 학습 코칭단 사후 평가회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 코칭 진행을 위한 건의 사항 전달 및 학생 이해 자료 개선 사항 확인

2 학습 코칭 교사의 자세 및 유의점

- 학습 코칭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이해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코칭 일정을 해당 학생과 공유함.
- 학생의 성격유형(MBTI) 및 메타인지 능력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을 숙지하는 등 학생 이해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코칭 학생이 겪고 있는 학업 문제 및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칭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 학습 코칭 이후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업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코칭 학생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코칭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학습 코칭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 향상의 경험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재미를 선사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습 코칭 이후에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학습 코칭을 통해 알게 된 학생 이해 자료를 해당 학생의 담당 교사와 공유하기 위한 성실한 피드백 제공 및 관련 자료의 문서화가 필요함.

III

학습 코칭의 절차 및 세부 내용



1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사전 자료 조사 및 점검

- ☐☐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
- ☐☐ 유니브 또는 마중물 성적 자료(학기별 내신 성적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역별 등급 및 백분위 변화)
- ☐☐ 관심 분야 및 진로 희망 계열
- ☐☐ 학원 수강 여부,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 ☐☐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교과 관련 교재

2 상담을 시작할 때에는: 마음 열기 및 동기 파악

- ☐☐ 마음 열기를 위한 인사 또는 질문으로 상담 시작
 - 예시**
 - 학습 코칭 하기 전까지 뭐했어요?
 - 배고프지 않아요? 저녁은 먹었나요?
 - 선생님 첫인상이 어떨까요?
- ☐☐ 상담 신청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
 - 예시**
 - 상담 신청서에 적혀 있지만, 그래도 상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 보내준 성적 자료를 확인해 보니, ○○ 과목의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상담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상담 중에는: 학업 역량 파악 및 조언

- ☐☐ 관심 있는 학업 역량 분야 파악
 - 예시**
 - 내신 성적과 전국연합평가 성적 중 어떤 부분의 성적 향상에 관심이 있나요?
 - ○○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히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나요?
- ☐☐ 상담 진행 이전 학기의 내신 및 전국연합평가 성적 파악
 - 예시**
 - 1회 고사의 경우 대략 몇 등급인가요?
 - ○○ 과목의 원점수는 얼마였어요?
 - 최근 모의고사에서 ○○ 과목의 원점수와 등급은 어땠나요?

☞ 교과별 일일 및 주간 학습 시간 파악

예시

- 하루에 ○○ 과목은 몇 시간 공부하나요?
- ○○ 과목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공부하나요?

☞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확보의 중요성 강조

예시

- 학원 숙제나 학원 수강, 인강 등에 투자하는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그럼 학원 숙제나 학원 수강, 인강을 제외하고 ○○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비효율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함.

☞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 점검 및 활용법 조언

TIP: 상담 전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 확인 후 교재의 구성, 난이도, 분량 등을 체크함. 이를 학생과 같이 확인하여 교재의 적절성 여부 및 사용 방법 설명.(학원 제작 교재의 경우, 사전에 교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보여주도록 부탁함.)

☞ 학생의 관심 분야 파악 및 진로 계획 수립 조언

예시

-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 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했나요?
- 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과목의 성적이 높아야 하나요?

TIP: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함. 만약 진로 계획 수립에 회의적인 학생일 경우, <목표가 없는 배에 부는 바람은 방향과 상관없이 모두 역풍일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배는 역풍이 불더라도 뜻을 조절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와 같은 예를 들면서 목표를 세우도록 독려함.

4 상담을 마칠 때에는

☞ 성적 향상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함.

예시

- ○○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 선생님은 <노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어요. 당장 성적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 성격검사를 이용한 상담을 했을 경우, 자신의 성격이 지닌 장단점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함.

☞ ○○ 과목과 관련된 학습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SNS 등을 활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학습 코칭을 마친다면, 학생에게 코칭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음.

IV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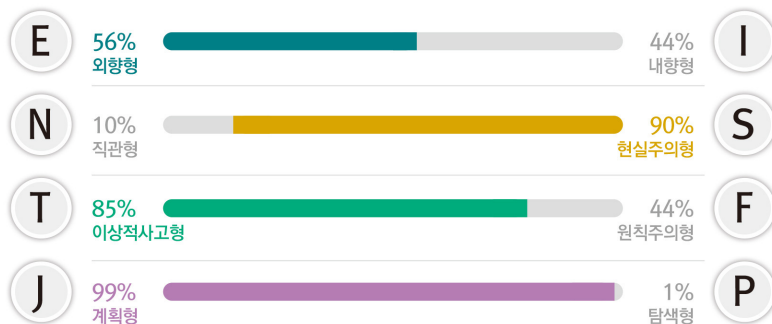
인천초은고등학교 교사 한은정

학습 코칭은 단순히 학생의 학습결손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해결해서 완전학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도와주는 것보다, 학생이 교과 학습할 때, 느꼈던 심리적인 부분(시험불안, 학습방법에 자신감 결여, 진로 결정 등)을 이해, 공감을 해 주고, 학생이 스스로 최선의 학습상황 및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습 심리상황을 이해하는 도구로 성격유형 검사(MBTI 성격검사)를 활용하여 학습 코칭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MBTI 성격검사 소개

MBTI는 아래와 같이 선호지표에 따라서 16가지로 분류됨

← 선호지표 →			16가지 성격유형			
외향 E	에너지 방향	내향 I	ISTJ	ISFJ	INFJ	INTJ
감각 S	인식기능	직관 N	ISTP	ISFP	INFP	INTP
사고 T	판단기능	감정 F	ESTP	ESFP	ENFP	ENTP
판단 J	생활양식	인식 P	ESTJ	ESFJ	ENFJ	ENTJ



[그림1] <https://www.16personalities.com> 검사결과 화면



수치는 그 선호지표의 특징을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1]은 MBTI 성격검사 결과 샘플(본인)을 살펴보면, 수치가 높은 선호지표에 따라 ESTJ(엄격한 관리자형)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서 ‘ESTJ’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각 선호지표의 수치’를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0%를 넘어가는

예를 들면 저는 E(56%), I(44%)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저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저의 본성은 I(내향)입니다. 그러나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E(외향)이 키워진 경우입니다. 학교 업무를 떠나면 저도 I(내향)의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나머지 선호지표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은 S(감각형), T(사고형), J(계획형)이고, 그 선호지표들의 특징을 강하게 표출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MBTI 검사가 유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유형은 알지만 그 수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각 선호지표의 수치를 조사해 오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수치에 따라 성격 선호지표의 강약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은 아직 성장기라서 성격형성이 완성이 되지를 않아서 50~60% 내외에서 있는 성격 선호지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60% 이상인 선호지표는 그 학생의 뚜렷한 성격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MBTI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학습 방법

1)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

자신의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따라 외향과 내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활동할수록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음미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외향, 후자가 내향입니다.

문자보다는 통화를, 소수보다는 다수와 함께하기를, 논술보다는 토론을 좋아하는 성향이 외향이고, 그 반대의 성향이 내향입니다. 각 성향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외향)	I(내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용한 곳보다는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것(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자율학습 NO!) 학습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문답식(발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이다.(멘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 효과가 좋으나 5인 이상이 모이면 학습에 방해된다. 개인 학습보다는 그룹 학습(조별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시끌벅적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 속에서 해야 재미있어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 또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자율학습 OK)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 매우 적합하다. 개인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그룹 학습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발표수업보다는 오히려 문제풀이 시간을 주고 혼자 풀게 하는 것이 좋다.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 속에서 문제풀기를 선호함.

2) 직관형(INTuition)과 감각형(현실주의형, Sensing)

정보를 수집,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관형과 감각형으로 나뉩니다. 앞선 경험과 오감, 현실에 기반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경우와 육감, 미래지향,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빨간 사과 이미지나 ‘맛있다’는 생각을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A사의 스마트폰 또는 뉴턴을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가 감각형, 후자가 직관형입니다. 수학 과목으로 예를 들면 필수 예제 설명을 듣고 그 필수 예제 따른 유형문제를 푸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감각형이고, 이해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풀어야 하는지, 다르게 풀면 안 되나 하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직관형입니다. 다음은 감각형, 직관형에 따른 학습방법입니다.

N(직관)	S(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내용의 개요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목차와 핵심문단 등을 먼저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통한 노트필기가 도움이 된다. • 반복적인 것을 싫어하므로 틀린 문제를 자주 푸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의 오류인 지점을 찾아보기 • 자유주제로 연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문제를 더 잘함. • 다양한 풀이를 제시하면 적극적인 칭찬과 독려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한 설명이 있는 교재나 충분한 보조 자료가 있는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하면 효과적이다.(정석, 기출문제집 등) • 배운 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거나 실제로 해봄으로써 더 학습효과가 증대할 수 있다. •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유사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분석, 요약정리 하는 것을 더 잘한다.

3) 감정형 (Feeling), (이성적)사고형 (Thinking)

어떤 상황에서 판단 또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규칙, 원칙,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와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결정기준을 바꿀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가 사고형, 후자가 감정형입니다. TV 광고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 ‘사람이 먼저입니다.’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감정형입니다. 감정형과 사고형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구분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형과 사고형에 따른 학습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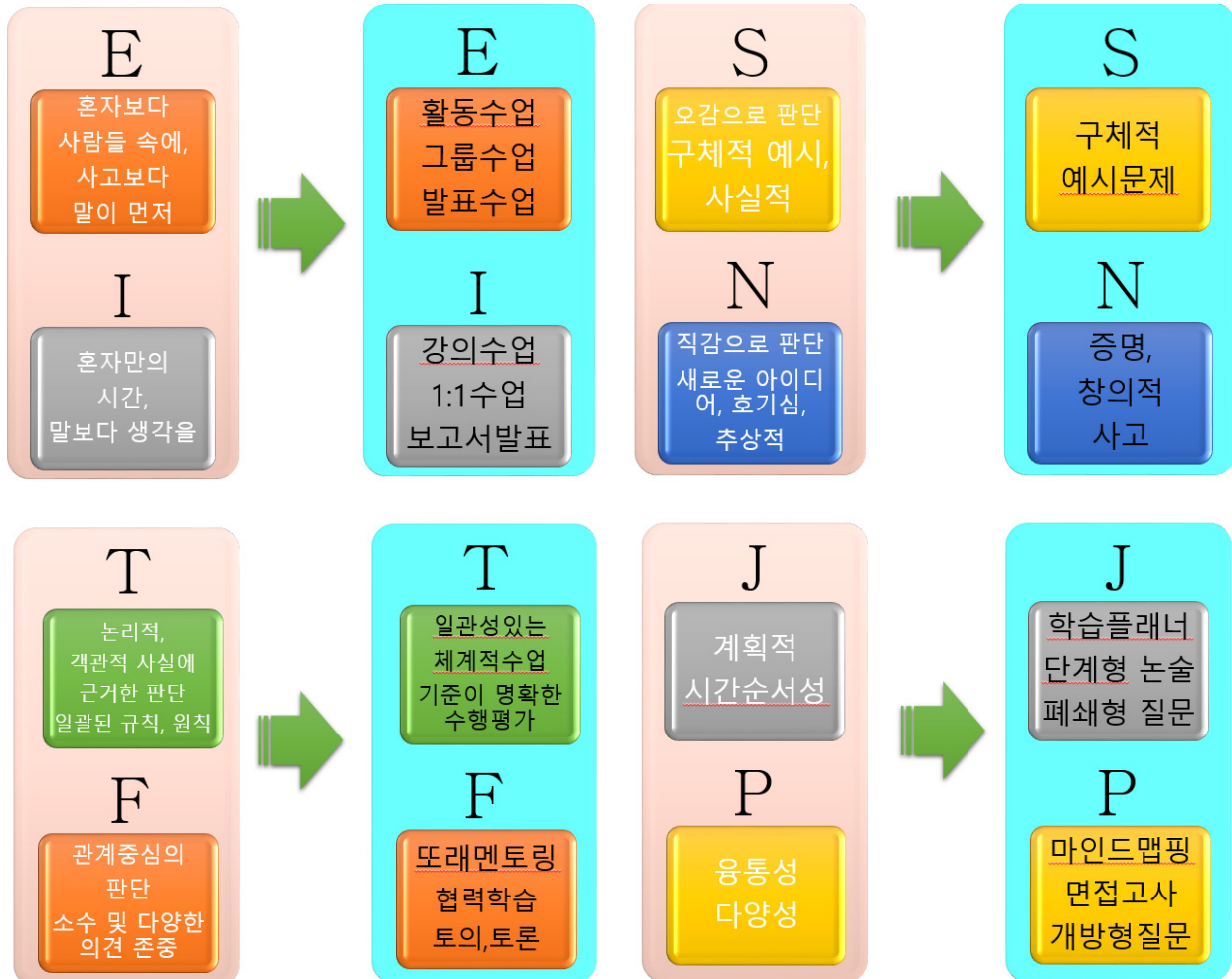
T(사고)	F(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학습하는 스타일이다. 논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얻어 진도를 조절해야 한다. • 예외적인 기준이 생기거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 • 기준이 명확한 수행평가를 더 좋아한다. (조별 점수 또는 태도 점수를 이해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난 잘 할 수 있다"등의 자기최면을 거는 것이 좋다. • 객관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배운 내용이 나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연관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신의 감정, 사고 등을 표현하는 문제를 더 잘함. •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화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4) 탐색형(인식형) (Perceiving), 계획형(판단형) (Judging)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계획된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체계적이며 잘 정리된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와 일의 진행순서가 바뀔지라도 상황 대처가 잘되며 빠듯한 시간에 따른 진행보다는 여유로운 진행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가 계획형, 후자가 탐색형입니다. 학습계획표를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계획형)와 오전, 오후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는 경우(탐색형)를 나눠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요. 다음은 계획형과 탐색형에 따른 학습 방법입니다.

J(계획)	P(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과정을 수립하여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학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습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양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 논술평가, 정량평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평가를 더 선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한 것을 꾸준히 지키는 타입이 아니므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플래너 작성은 의미 없음) • 흥미가 있는 과목이나 내용을 먼저 학습하여 학습에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할 때, 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구술, 면접평가, 정성평가에서 더 성적이 잘 나옴.

MBTI 성향별 학습코칭



3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 사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상담시기: 1학기 2회고사 종료 후

MBTI 검사 결과: E(58%), S(56%), T(53%), J(74%)

1회고사 성적은 다수의 과목 성적이 70~80점, 전국연합평가: 3~5등급

신청 이유: 수학 공부(오답노트 작성 포함)를 가장 많이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원인을 알고 싶다.

ESTJ 성격 특징상 수학 상담신청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S는 필수예제, 유형풀이를 선호하고, T는 수학에 적합, J는 계획형이라서 시간을 분배해서 체계적으로 잘함, 단 응용 또는 창의문제에서 힘들어 함.)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학생은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고, 자신의 학습방법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학원수강을 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공부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왜 학원수강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들어 볼 필요 없고 어차피 자신이 풀어 보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저는 학생의 판단이 맞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에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성적이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니 공부를 중학생들처럼 정기고사 기간이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시작했고, 정기고사 2주 전부터 강한 계획형(J가 74%)답게 과목별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학 과목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충분한 수학 공부를 못했고 다른 과목에 시간 분배를 하다 보니 성적이 모두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한 계획형(J가 74%)이라서 시간에 쫓기는 학습방법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현실주의형 (S 56%)은 충분한 문제풀이를 해야 자신감이 상승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이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며,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감 및 불안감 해소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생처럼 정기고사 기간에만 하는 것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의 구성이 S성향(필수문제 + 다수의 유형문제)에 맞는지 확인하고, J에 맞게 매일 꾸준한 국, 영, 수 학습 시간을 분배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했습니다.

E 성향에 맞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학교 수학 교사 또는 상위권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T, J에 맞게 오답노트 작정보다는 해답의 풀이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하여 원인을 찾고, 해답에 라벨링 할 것을 권했습니다.


상담효과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상담종료 시에 학생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그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상담사례처럼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MBTI 선호지표를 완전한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상담과정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MBTI의 완벽한 숙지 및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학생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자신감이 떨어졌을까? 왜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해소, 학생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1. MBTI 성격검사 사이트:

<https://www.16personalities.com/ko/%EB%AC%B4%EB%A3%8C-%EC%84%B1%EA%B2%A9-%EC%9C%A0%ED%98%95-%EA%B2%80%EC%82%AC> 

2. MBTI 사유와 내면성찰: <https://mbti1.tistory.com/7?category=638475> 

3.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2000. 한국심리검사연구소)

4.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2000. 한국심리검사연구소)

V

메타인지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대인고등학교 교사 이윤승

1 메타인지의 정의와 시사점

가. 메타인지의 정의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한 단계 고차원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인지(cognition)’의 합성어이다. ‘인지 활동에 대한 인지’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 성찰능력을 말한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낯선 것과 낯설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한다. 흔히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능지수보다 성적을 더 잘 예측하는 변수는 메타인지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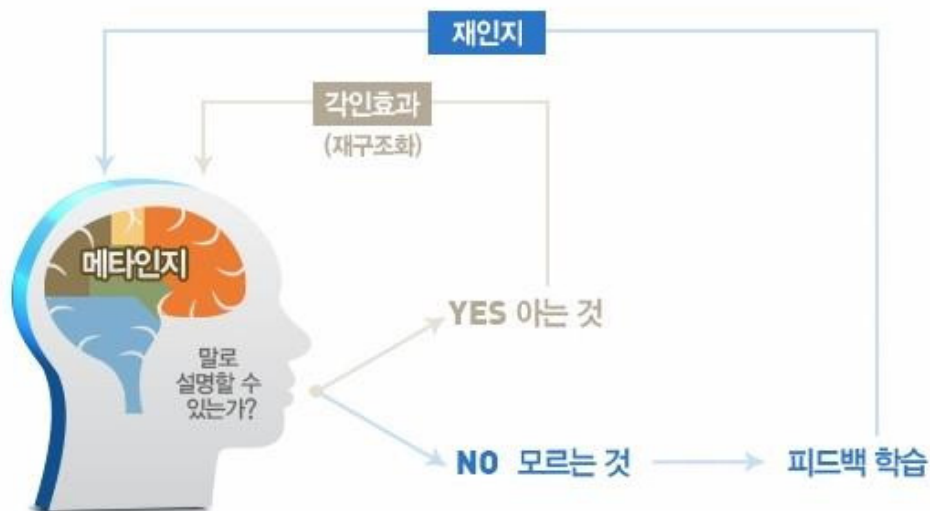
메타인지란(MetaCognition)

한 단계 고차원 의미하는 메타(Meta), 어떤 사실 안다는 뜻의 인지(Recognition)의 합성어



나. 메타인지의 시사점

메타인지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평가, 그에 대한 계획과 관리 능력을 수반한다. 학습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기평가가 이후에 학습 과정을 계획 실행하고, 학습 동기 등을 관리하는 자기 조절력 또한 메타인지에 포함된 능력이다. 메타인지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 미래역량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은 지식, 스킬, 인성 다음으로 ‘메타러닝’을 제4의 ‘미래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한 마디로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표현한다면, 메타러닝은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learning how to lear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 핵심 역량’의 저자인 찰스 파델과 버니 트릴링은 ‘메타러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세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스킬, 인성 역량의 재설계 외에도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면서 배우고, 자신이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성장 마인드 세트를 내지화하며, 목표에 맞게 학습과 활동을 적합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다재다능하고, 반추적이며, 자기주도적인 동시에 자립적이 되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상위 0.1% 학생들에게 특히 발달해 있는 메타인지능력 구조도]

배운 바를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으로, 아는 것은 말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뇌에 각인되어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잘 모르는 것은 재인지를 통해 완전하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메타인지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의 필요성

가.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의 시작 단계로서의 메타인지 학습 코칭

자기주도학습은 공부를 하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동기 조절 - 인지 조절 - 행동 조절’의 3가지 구성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동기가 생기는 요인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인데,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효능감은 언제 형성되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주어진 기회에 성실하되, 결과가 어떠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충실하려는 태도부터 자기효능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작은 도전을 통한, 작은 성취 경험이 축적될 때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이 무엇을 몰랐는지를 알려는 노력은 자기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학습 전략을 조정하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신이 배운 것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어떤 인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 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로 구성 되는데 ‘시연’은 우리가 흔히 공부하면서 하는 밑줄 긋기, 형광펜 칠하기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교화’는 이런 시연의 과정들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연관 짓는 과정으로,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이거나 범주를 정의하여 관계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직화’는 정교화한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이러한 인지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 및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줄 긋기, 백지 노트 정리하기 등의 여러 인지 전략 중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인지 전략은 크게 ‘계획 - 점검 - 조절’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학습 수행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수정과 보완을 통해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메타인지 및 메타러닝을 위한 학습 코칭의 시작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역량이 뛰어난 학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배운 내용 중 모르는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매달리며 정리를 반복하는 태도를 지녔고,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방법(문항 풀이 접근법)을 내재화하기 위해 개념 정리 후 예상 문제 풀이를 반복하며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문항을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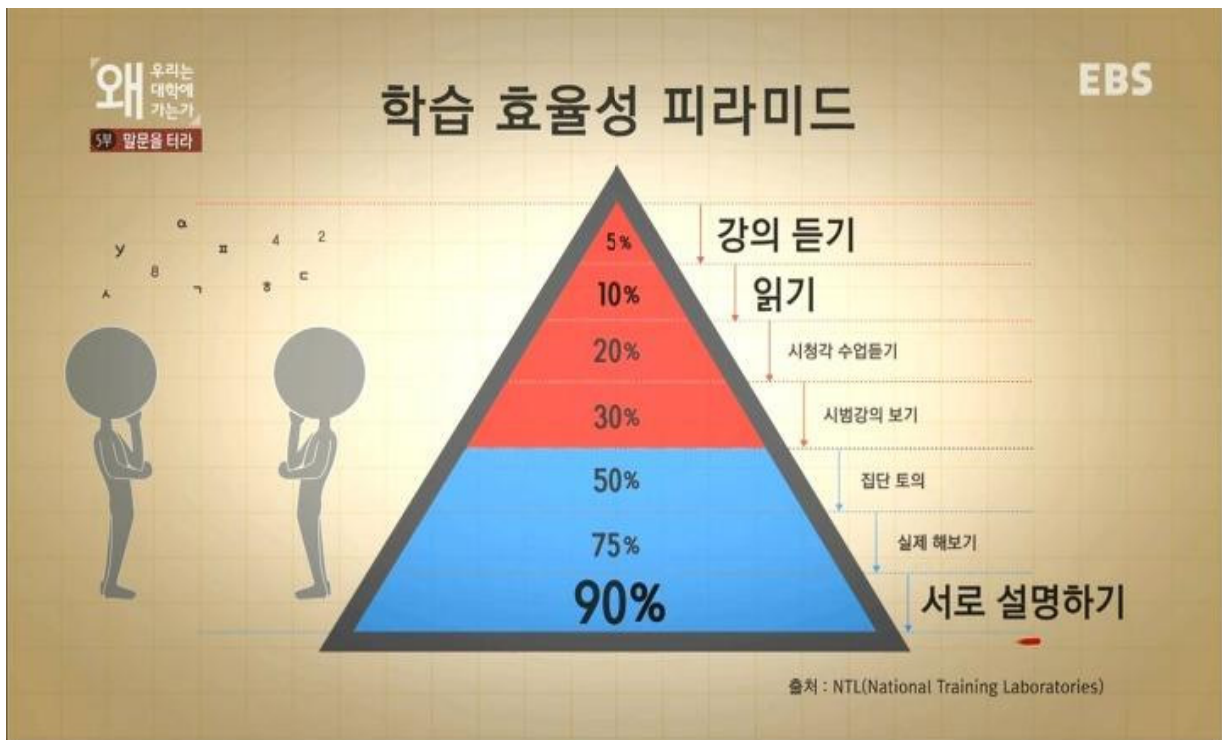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교과서 개념 학습 혹은 강의 반복 청취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개념을 무작정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시간을 더 쏟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알고 있는 개념을 반복하는 것보다 개념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이해하며 개념을 정리하여 오래 기억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항보다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변별도를 갖춘 문항의 대부분이 적용력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인지에 기반한 학습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에 기반한 메타러닝의 효과성을 학습자가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며 학습의 능률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학습 코칭의 시작일 것이다.

3 메타인지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

학업 성취도가 다소 낮은 학생을 위한 학습 코칭은 메타인지 기반 학습 코칭에 앞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을 맛보며, 목표지향적인 공부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가치를 고양하는 등의 학습 동기 유발 및 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연, 정교화 및 조직화’와 같은 인지 전략을 통해 자신이 흥미를 느끼거나 학습 동기가 생긴 개념이나 과목부터 공부하며 성취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더불어, 학습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이 어떠한 학습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 코칭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습 환경과 학습량 및 학습에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언하며 격려하면서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우는 코칭이 필요하다.

반면 중위권 학생의 경우, 메타인지 기반 학습 코칭이 절실히 필요한 학습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중위권 학생은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 정리하는데 몰두하거나, 확실한 개념 정리 없이 기출 혹은 예상 문제 풀이만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반대로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확인 혹은 점검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이 반복되어 자신의 학습 방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채 단순히 학습량을 늘리려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습 과정과 방식을 돌아보며 어떤 학습 과정에서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메타인지 역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 정도 되어야 성인 수준으로 메타인지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의 자신의 인지 수준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메타인지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내재화한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학습 코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위권 학생에게도 메타인지에 기반한 학습 코칭은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학생의 경우 공부에 기울인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반복되면 학습 방법을 계속하여 바꾸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학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과도하게 특정 과목의 특정 개념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는지와 같은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의 듣기나 보기 행위보다 학습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 혹은 남에게 설명하는 학습 방법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점을 코칭할 필요가 있다.



4 메타인지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의 상관 관계

자기주도학습은 동기 조절 - 인지 조절 - 행동 조절의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인지 조절에 메타인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고양된 후,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 전략이 효율적인지 점검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필요한 메타인지 메타니즘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인지가 정확한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며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습 활동(공부 시간과 노력 및 학습 행동 등)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행위를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촉발하려는 시도와 도전을 의미한다. 결국,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학습 코치와 학습자가 문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학습 코칭의 시작이다. 더불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시간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방법과 함께 학습 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해 조언하는 일 역시 메타인지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코칭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집중력이 향상되는지와 얼마나 학습을 집중력 있게 지속할 수 있는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환경과 집중력 기간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학습 코칭이 감당해야 할 일일 것이다.

참 고 자 료

1.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2. 최윤리, 메타인지, 자기 주도 학습의 열쇠, 브레인 vol.77, 42 - 42 page
3. 리사 손, 메타인지학습법, 21세기북스
4. 내 안의 가능성(용기)를 끌어내는 힘 - 메타인지, <https://lentamente.tistory.com/287> 
5.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4가지 방법, <https://brunch.co.kr/@annachoi/199> 
6. IQ의 시대는 지났다... 메타인지 학습법, <https://brunch.co.kr/@jinwookimtvei/1> 
7.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 

VI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은 공부를 하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실행·점검·확인·조절하며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구성 요인은 ‘동기 조절 - 인지 조절 - 행동 조절’이라는 3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동기 조절 -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내재적 가치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이를 학습 태도에 적용하자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학업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이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외적 요인에 의해 학습 동기가 생기는 것을 넘어서 내적 학습 동기가 유발되도록 스스로 학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 조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동기가 있을 때,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전략을 인지 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메타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이 있다. 이중 메타인지 전략에는 ‘계획/점검/조절’이 있는데, 자신이 선택하여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학습 전략 자체가 자신에게 효율적인지를 점검해보고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조건적인 공부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조정함을 의미한다. 인지 전략은 ‘시연/정교화/조직화’로 구성된다. 먼저 시연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니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밑줄 긋기’와 ‘형광펜 칠하기’가 대표적이다. 정교화는 이런 시연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연관 짓는 과정으로 배운(학습)한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이나 범주를 정의하여 세부 정보 간의 관계성을 맺는 과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조직화는 정교화한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학습 노트 제작하기 혹은 기본서로 단권화하여 개념 정리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동 조절

행동 조절 요인이란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거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가는 것을 말한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얼마 동안 공부해야 하는지와 같은 공부 방법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인데, 시간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갈 것인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학습자 자신의 노력을 얼마나 분배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행동조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차단하여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는 학습 행동 조절이 있는데, ‘D-100’이나 ‘인생의 좌우명이나 목표’를 책상에 붙여 놓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 고 자 료

자기주도학습 관련

<https://lentamente.tistory.com/search/%EC%9E%90%EA%B8%B0%EC%A3%BC%EB%8F%84%ED%95%99%EC%8A%B5>



02 교과편

국어

- I. 국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 II. 수능 국어 영역 과목별 학습 방법
- III. <2022 수능 예비 문항>으로 알아보는 새로운 문항 유형 학습 방법
- IV.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영역 이해
- V. 시험 대비 방법
- VI. 국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수학

- 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 I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 사례 Q&A
- III. 수능 선택과목 소개 및 성적산출방식
- IV. 수학과 학습코칭 관련 도서 및 사이트 안내

영어

- I. 영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 II. 영어과 학습드림코칭 사례 Q&A
- III. 영어과 교육과정, 수능 출제와 대입 반영
- IV. 영어 영역별 학습 방법
- V. 학교 평가와 수능(학력평가) 대비 학습 방법
- VI. 영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I

국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1 상담시작 전 사전자료 조사 및 점검

- 학년,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내신 성적, 전국연합평가 등급 및 백분위 변화, 학원 수강여부,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 사용하고 있는 국어교재(학원 제작 교재이면 상담 시 준비), 성격검사 및 상담신청서 등을 통한 학생의 학습상황 체크

2 상담을 시작할 때에는: 마음 열기 및 동기 파악

1) 마음 열기를 위한 인사 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① 비대면 상담인 경우

-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집인가요? 저녁은 먹었나요?
- 비디오표 얼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반려견 있으면 같이 있어도 돼요)

② 대면 상담인 경우(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 장소로 오는 경우)

- 집에서 바로 왔어요?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 배고프지는 않아요? 저녁은 먹었어요?(준비된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 열기 시도)

2) 상담 신청 동기 또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 상담신청서에 적혀 있기는 한데 상담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2 상담 중에는: 학업 역량 파악 및 조언

-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되어 있던데 내신인가요? 전국연합평가인가요?

- 상담 직전 성적(1회 고사의 경우 대략 몇 등급인가요? 대략 원점수 얼마였어요?)을 물어봅니다.

- ☞ 상담 기초자료에는 대부분 학기말 성적만 나오므로 1회 고사 성적 등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어 학습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 학원시간, 학원숙제, 학교숙제를 제외한 자기 주도적 국어학습시간을 물어봅니다. 또한 학원 가는 시간, 과목, 학원 수업시간도 강의시간인지, 자습과 질문시간인지를 물어봅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학생을 꾸짖듯이 하지 않도록 유의) 또한 학생이 국어의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이 거의 없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학생은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 국어 교재로 뭘 사용하는지를 물어봅니다.

☞ 직접 인터넷 서점사이트에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교재의 구성, 난이도, 분량 등을 학생과 같이 체크해 봅니다. 만약 학원 자체 제작교재인 경우 보여 달라고 해서 구성, 난이도, 분량 등을 학생과 같이 체크해 봅니다. (단, 상담 사전에 준비를 요청)

☞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국어 학습의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진로를 질문 합니다. 이때 진로를 직업이나 학과까지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는 학생에게는 <목표가 없는 배에 부는 바람은 방향과 상관없이 모두 역풍일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배는 역풍이 불더라도 돛을 조절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와 같은 예를 들면서 가급적 목표를 세우도록 독려합니다.

4 상담을 마칠 때에는

☞ 학생에게 상담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국어 성적이 향상되었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최소 2~ 3개월이 지났을 때, 학습 효과가 나오므로 당장 다음 정기고사에서 기대한 만큼 성적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 성격검사를 이용한 상담을 하셨을 경우에는 성격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바뀌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했으면 각 성격지표의 장단점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격려를 해 줍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 상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없나요?”라고 질문을 해서 학생이 하고 싶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추가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이때 하는 추가 질문은 앞선 상담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시간이 부족하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추수지도는 이렇게!

- 제시한 코칭대로 학생이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수지도는 필요합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칭찬과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II

수능 국어 영역 과목별 학습 방법



1 독서 영역

-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 생활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출제됨.
-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함.
- 기초적인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문장 및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함.
- 여러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기본 개념이나 대상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2 문학 영역

-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함.
-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됨.
- 교과서 내외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폭넓게 읽으면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감상을 해야 함.

3 화법 영역

- 화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아울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함.
- 이를 위해 대화·연설·면접·토론·협상·발표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됨.
- 다양한 담화 원리를 이해하여 담화의 내용과 형식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함.

4 작문 영역

- 작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아울러 국어 규범에 기초한 작문 능력,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함.
- 이를 위해 정보전달·설득·정서표현·자기 성찰·배경 등 다양한 작문 상황(주제·목적·예상독자)을 설정하여 출제됨.
-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에 맞게 내용을 생성·조직·표현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쳐 쓰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5 언어 영역

- 언어 능력은 국어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국어 단위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으로 나눌 수 있음.
-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국어지식, 적확하고 적절한 국어사용을 가능케 하는 국어 규범의 이해와 적용 능력, 국어사 지식 등을 측정함.
- 국어 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 국어 단위나 국어사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함.

6 매체 영역

-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소통 방식 및 매체 언어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다양한 매체 언어를 수용, 생산, 향유하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함.
- 이를 위해 인쇄·전자·대중 매체 및 복합 양식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설정하여 출제됨.
- 다양한 매체의 소통 방식과 매체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언어를 수용, 생산, 향유할 수 있어야 함.

Ⅲ

<2022 수능 예비 문항>으로 알아보는 새로운 문항 유형 학습 방법



| Q & A |

1
3

Q. [독서 영역]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을 제시한 후, 두 글의 관점을 비교·분석하는 문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2021학년도 6월 모의수능부터 (가)와 (나) 형식으로 제시문을 구성하는, 주제통합형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대수능과 이번 2022학년도 예비문항, 그리고 2022학년도 6월 모의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이 출제되었기에 앞으로 이런 유형의 출제가 매우 유력합니다. 주제통합형 제시문은 아래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하락>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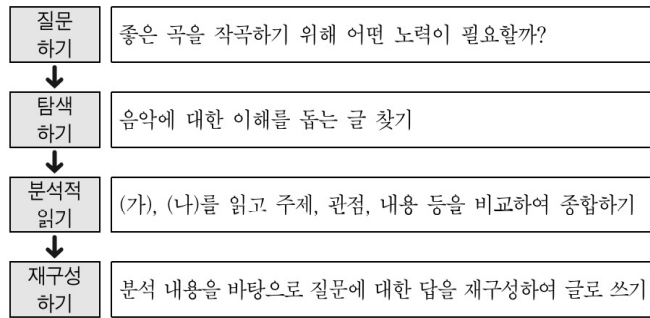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 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Q & A

1
3

A. 그리고 주제통합형 제시문의 첫 번째 문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출제됩니다.

-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가), (나)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문항을 풀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요. 따라서 평소에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생글생글>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인터넷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사이슈 찬반토론]이란 코너에는 매주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글들이 두 편씩 올라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쉽게 작성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21072600717000151&c1=03&c2=26>



Q & A

2
3

Q. [문학 영역]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처럼 여러 작품을 수록한 후 그 작품에 대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는 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의 [22~25] 제시문에 관한 질문인데요, 바로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για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για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써어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름 다 도듯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슌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흐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하략>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출제되었던 문학 이론과 고전시가 작품 복합 세트 구성과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당시 문학 이론 복합 세트는 제시문이 (가), (나), (다)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하나의 제시문 속에 여러 작품들을 수록해 놓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처음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황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외적 준거로 제시되었던 문항의 <보기>를 제시문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이, 작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을 준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시문의 작품 설명은 거의 대부분 작가나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작품들의 상호텍스트성(주제 및 제재, 표현 기법 등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 작품 창작의 역사적 맥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문학> 교과서에 작품과 함께 수록되어 있고, 학습 활동으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을 통해 작품과 그 작품과 관련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문항을 충실히 해결하는 것, 이것이 위와 같은 제시문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 A

3
3

Q. [매체 영역] 올해 수능에는 매체 영역이 처음 출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행 문항에서는 매체의 특성과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등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모든 매체의 특성과 정보 구성 방식 등을 모두 암기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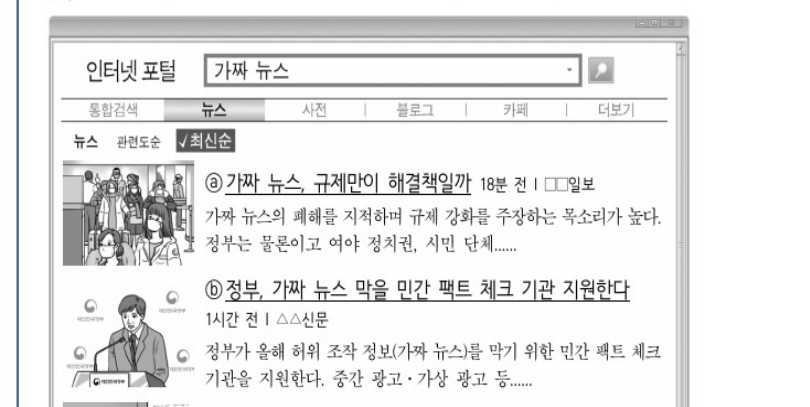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수능시험부터 매체 과목이 수능에 출제됨에 따라 과연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시 문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 문항에서 매체 제시문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이 제시문에서 (가)는 종이 신문을, (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뉴스 검색 화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각 매체 자료의 특성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Q & A |

3
3

A.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선지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매체에 대한 평소의 배경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각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제시문의 두 번째 문항으로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의 적절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하락>

<보기>에서는 언론사의 뉴스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이트 키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이 용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보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매체 문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매체 과목의 수업 시간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매체 문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V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영역 이해



1 국어 영역 응시 과목과 선택 방법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함.
- 전체 45문항 중, 공통과목에서 34문항, 선택과목에서 11문항이 출제됨.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 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 3	100점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과목 : 독서, 문학 선택과목(택 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75%, 선택 25%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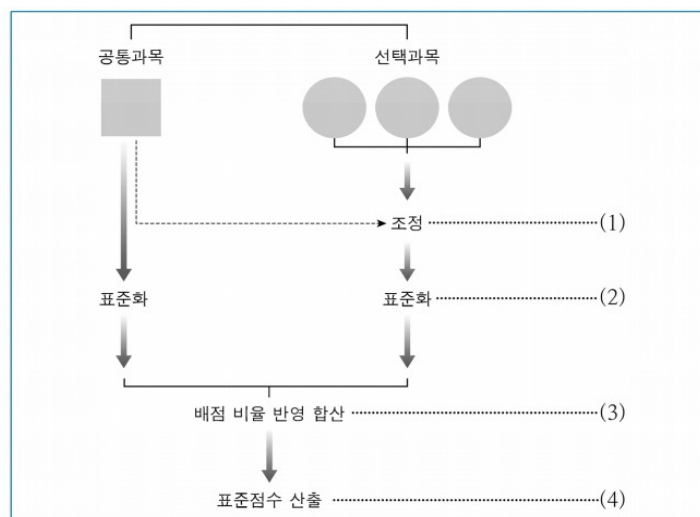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대수능 학습방법 안내」



2 국어 영역의 성적 산출 방법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선택 과목에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함.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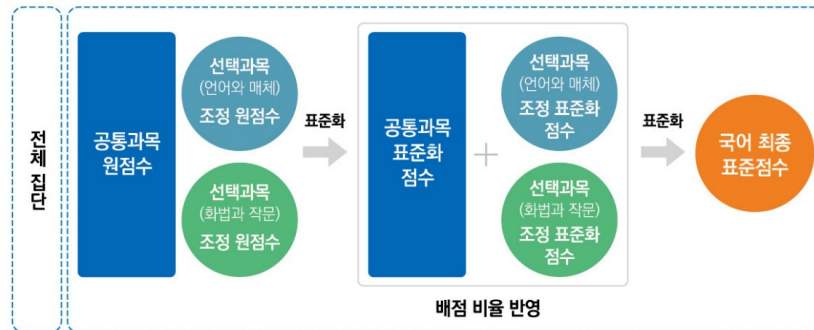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대수능 Q&A 자료집」



3 국어 영역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국어 영역의 최종 표준점수 산출 방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대수능 Q&A 자료집」)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국어 영역 점수 산출 방법

선생님! 그럼, 이꿈이와 배우
'언어와 매체(이꿈)'와 '화법과 작문(배우)'을 각자 선택했는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가 60점, 17점으로 동일하다면,
최종 표준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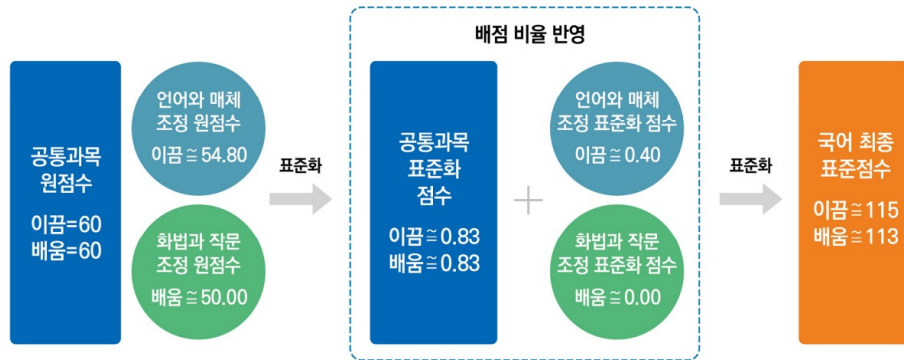
두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과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먼저 아래 표와 같이 **선택과목 평균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
이꿈이는 '언어와 매체'에서 평균인 15점보다 높은 17점을 받았고,
배우는 '화법과 작문'에서 평균인 17점을 받았으니까,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이꿈이(54.80점)가 배우이(50.0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겠네.
최종 표준점수도 이꿈이가 배우이 보다 높을 거야. 대략 이꿈이는
115점, 배우이는 113점을 받을 것 같은데.



선택과목	선택과목 집단별 원점수						학생	선택과목	학생별 원점수		
	공통과목			선택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	총점
	평균	표준편차	배점	평균	표준편차	배점					
언어와 매체	50	12	76	15	5	24	이꿈	언어와 매체	60	17	77
화법과 작문	50	12		17	5		배움	화법과 작문	60	17	77
전체	50	12									



오~ 이점이의 선택과목 원점수(17점)가 평균(15점)보다 높으니까, 최종 표준점수에도 반영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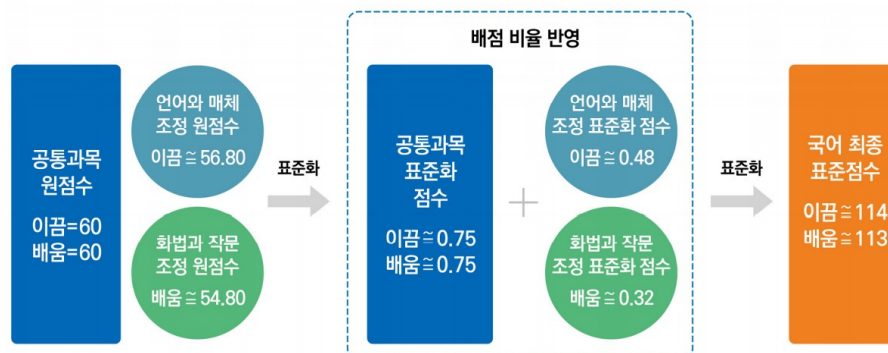
어떤 과목을 선택하건 점수를 잘 받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럼, 공통과목 평균이 다를 때는 최종 표준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아래 표처럼 **공통과목 평균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언어와 매체(52점)', '화법과 작문(50점)'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이 이점(56.80점)과 배움(54.80점)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에 반영된단다.
최종 표준점수도 이점이 배움이 보다 높겠지? 대략 이점은 114점, 배움은 113점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



선택과목	선택과목 집단별 원점수						학생	선택과목	학생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배점	평균	표준편차	배점			공통과목	선택과목	총점
언어와 매체	52	12	76	15	5	24	이점	언어와 매체	60	17	77
화법과 작문	50	12		15	5		배움	화법과 작문	60	17	77
전체	51	12									



02 교과편(국어과)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이 공통과목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최종 표준점수에도 반영되는군요.

그렇네요. 결국,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결정되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공통과목 평균이 높은 선택과목을 응시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성적이 좋으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만약 자신의 성적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공통과목 평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정 과목을 선택하면,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사이의 점수 차이가 커지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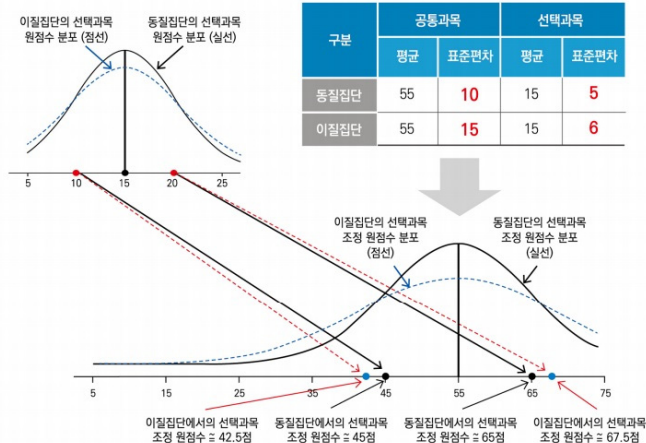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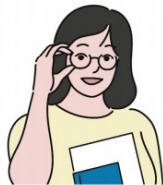
아래 표를 보자. 어떤 집단 내에서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동질집단', 점수 차이가 크면 '이질집단'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질집단의 표준편차가 더 커지게 돼.
물론 평균도 다를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은 동일한 경우로 가정하자.



구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질집단	55	10	15	5
이질집단	55	15	15	6

아래 그림을 보면, '선택과목 원점수'가 같더라도 동질집단에 비해 이질집단에서는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더 높거나 낮게 조정될 수 있단다.
이질집단의 경우, 원점수 20점은 대략 67.5점으로 더 높게 조정되는 반면에, 원점수 10점은 대략 42.5점으로 더 낮게 조정될 수 있어.

결국, 점수 조정은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편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과목 평균이 높은 선택과목을 응시하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네가 선택한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면 될 거야.'



음, 이제 알겠네요.
어느 선택과목이 유리한지 고민할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대수능 Q&A 자료집」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선택과목이 같은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한 원점수가 같다면 공통과목의 원점수가 높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점수가 더 높게 산출됩니다.
 2. 선택과목이 다른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한 원점수가 같다면, 공통 및 선택과목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최종 표준점수가 높아집니다.
- ☞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V

시험 대비 방법



1 지필평가 대비 방법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수업 시간 中	① 본 수업의 정주행 (원격 + 대면)	나는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시험 문제 출제 기간 에 집중하는가
	② 필기 (교과서 + 노트) - 색깔 펜, 형광펜, 메모지 등 활용	나는 필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필기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 나는 필기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필기 습관 은 어떠한가
시험 기간 前	③ 시험 범위 내용 정리 (출판사 주석본 + 본인 필기본)	해당 출판사의 주석본 확보하기. 주석본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 필기본 을 반드시 정리하자.
	④ 기출 문제 풀이 - 기출 문제 확보 (출판사 + ebs + 인터넷 등)	기출 문제는 많이 풀수록 그만큼 유리하다.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⑤ 틀린 문제 정리 - 오답 노트 만들기	자신이 가장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 정리하자.
중간 고사 後	⑥ 중간고사 등급 확인 - 등급 내 본인의 위치	지필과 수행의 비중 을 알고 있는가 등급 내 본인 위치 를 알고 있는가 기말고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등급 업 전략 인가 방어전 전략 인가
	⑦ 등급 업(up)을 위한 기말고사 최소 점수 예측	중간고사 등급별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기말고사 에서 몇 점을 받아야 등급 업이 가능한가

1) 본 수업의 정주행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수업시간 中	본 수업의 정주행 (원격 + 대면)	나는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시험 문제 출제 기간 에 집중하는가

- 현재처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될 때일수록 본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학교 내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 교사가 출제한다는 것임. 따라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하는 것, 부교재, 배부하는 수업 보조 자료 등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내신 공부의 첫 단추에 해당함.
- 학교의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나 출제 기간 이후부터 시험 기간 전까지의 수업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집중할 것. 어떤 형태로든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짐.

2) 필기의 중요성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수업시간 中	필기 (교과서 + 노트) - 색깔 펜, 형광펜, 메모지 등 활용	나는 필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필기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 나는 필기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필기 습관 은 어떠한가

- 필기는 졸음 방지로도 효과가 있으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효과적임. 수업 이후 꽤 시간이 지난 뒤 복습할 때 수업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됨.
- 교과서의 여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과서 본문 내용만 따로 미리 출력(A4)하여 이를 활용해 필기하는 것도 방법이 됨.
- 노트를 마련하여 수업 시간에 교사의 수업 내용을 주요 단어 위주로 받아 적고 수업 후에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됨. (노트 필기는 거칠게 하더라도 교사의 주요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며 정리하는 방식으로)
- 다양한 색깔 펜과 형광펜 등을 활용할 것. 필기, 메모하는 것 자체가 수업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억을 장기화하는 데 도움이 됨.
- 활동형, 모듈형 수업이 아니라 강의식 수업의 경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주로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의 발언)을 필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음.

3) 시험 범위 내용 정리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시험기간 前	시험 범위 내용 정리 (출판사 주석본 + 본인 필기본)	해당 출판사의 주석본 확보하기. 주석본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 필기본을 반드시 정리하자.

- 해당 교과서의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업 자료와 주석본 등을 확보하여 복습의 자료로 삼음.
- 본인 필기본과 비교하여 필기의 내용과 주석의 내용이 다를 경우 확인.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인.
- 시험 범위 전체 내용을 필기본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후 주석본도 확인함.
- 필기본과 주석본을 모두 정리한 후 기출 문제 풀이를 반드시 병행해야 함.

4) 기출 문제 풀이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시험기간 前	기출 문제 풀이 - 기출 문제 확보 (출판사 + ebs + 인터넷 등)	기출 문제는 많이 풀수록 그만큼 유리하다.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국어 내신 공부는 기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시험 범위 각 단원들, 특히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일 경우 각 작품들의 기출 문제를 가령 100문항씩 풀었다고 가정한다면,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음.
- 각 작품이 문항화되어 출제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기본과 주석본으로 정리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문제 풀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문제 풀이를 통해 각 작품의 주요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작품과 관련된 내적, 외적인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문제를 풀면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매력적인 오답, 출제의 함정, <보기> 문항의 풀이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음.
- 기출 문제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로를 찾아볼 것. (각종 출판사 홈페이지, ebsi 나만의 문제 만들기,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5) 틀린 문제 정리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시험기간 前	틀린 문제 정리 - 오답 노트 만들기	자신이 가장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 정리하자.

- 오답 노트는 과연 필요한가,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판단과 정리 방식 등에 대한 학생 개인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실전적인 오답 노트 작성이 필요함.
- 오답 노트는 문제 풀이 후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음.
-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백에 적어두는 메모 형식과 달리 문제를 푸는 데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념이나 배경지식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새롭게 찾아 알게 된 점들을 적는 방식

6) 1회고사 등급 확인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1회고사 後	1회고사 등급 확인 - 등급 내 본인의 위치	지필과 수행의 비중 을 알고 있는가 등급 내 본인 위치 를 알고 있는가 등급 업 전략 인가 방어전 전략 인가

- 1회고사 시험 후 자신의 등급과 석차, 등급 내 위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회고사 기준으로 각 등급별 커트라인 점수를 파악해야 함. (보통 학교에서 제공함)
- 3등급(11%~23%)에서 자신의 위치, 4등급(23%~40%)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함. (가령 3등급의 경우 12%인지, 22%인지, 4등급의 경우 24%인지, 39%인지 등)
- 등급 내 위치를 확인 후 등급 업 전략과 방어전 전략을 세워야 함. 3등급 12%, 4등급 24%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급 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3등급 22%, 4등급 39%의 경우 등급 업보다는 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방어전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수행평가에서 가급적 점수를 깎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회고사 이후 수행평가에 더욱 신경 써야 함.

7) 등급 업(up)을 위한 2회고사 최소 점수 예측

시기	내신 공부 순서	주요 점검 사항
1회고사 後	등급 업(up)을 위한 2회고사 최소 점수 예측	1회고사 등급별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2회고사에서 몇 점을 받아야 등급 업이 가능한가

- 1회고사의 각 등급별 커트라인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고사+2회고사+수행평가'를 합산하여 한 등급이 올라가려면 2회고사에서 원점수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급이 올라가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와 더불어 등급이 유지되려면 최소 몇 점을 받아야 안전한지도 같이 예측할 것. (등급 상승 최소 점수, 등급 하락 최소 점수)
- 등급 상승이 가능하려면 2회고사에서 몇 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몇 점 이하를 받게 되면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2회고사에 임하는 각오도 달라지며, 공부에 지칠 때 본인을 끌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이 됨.

2 수행평가 대비 방법

1) 수행평가의 성격

- 수행평가는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음.
-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 교과 교육과정(성취기준)을 근거로 학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찰법,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구술, 글쓰기, 연구·실험보고서 등 다양한 과정 중심평가로 수행평가의 영역이 구성됨.
- 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 참여가 수행평가 준비의 첫 단계임.
- 학기 초에 선생님이 제시한 수행평가 영역, 반영 비율, 실시 시기, 평가 기준(평가 요소)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비하여야 함.

2) 쓰기 영역

- 독서감상문, 서평 쓰기, 독서일지 쓰기, 수필(자유 주제) 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등
- 쓰기 영역은 내용 요소, 조직 요소, 표현 요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평가함.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독서 관련 글쓰기인 경우, 책의 내용 파악을 최우선으로 하며,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새롭게 안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함.
- 서평 관련 글쓰기인 경우,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 중 독서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책을 고르고, 책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 주제 등을 고려하여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이해한 후에,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문체를 사용하여 서평을 효과적으로 써야 함.

3) 말하기 영역

- 토의·토론, 건의하기, 소개하기, 설득하기, 발표하기, 면접하기
- 말하기 목적, 주제 고찰, 청중 분석, 말하기 시간, 내용 구성, 시청각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여러 번 입으로 반복하여 읽어보며 자신만의 말하기를 준비해야 함.
- 토론의 경우 쟁점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논증을 구성하며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 요소임.
- 발표의 경우 청중의 관심, 요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시청각 자료를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4) 읽기 영역

- 사실적 독해, 창의적 독해
- 사실적 독해의 경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찾고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함.
- 창의적 독해의 경우 글의 내용 이해, 글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있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5) 포트폴리오 영역



- 수업 기록, 관찰법
-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생님이 제시하는 수행 과제에 대한 이수 능력이 높여야 함.
- 다양한 국어 자료의 탐구를 통해 학습한 국어 이론의 핵심 요소를 적절히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해야 함.

6) 협업

-  모둠별 평가, 팀 프로젝트, 조별 과제
-  모둠별 과제를 확인하고, 한 명의 무임승차도 없이, 모든 모둠원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와 모둠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점수가 모둠의 점수임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VI 국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1 EBSi / EBSi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센터

- 1) <https://www.ebsi.co.kr/ebs/pot/poti/main.ebs> 
(기출 문제, 대수능 분석 및 국어 전 영역 학습 동영상 제공)
- 2) <https://www.ebsi.co.kr/ebs/ai/com/aiIndex.ebs> 
(영역별, 난도별 맞춤 문항 제작 및 해설 제공)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평가자료

- 1)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05>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수능 모의평가 문항 및 해설, 통계 자료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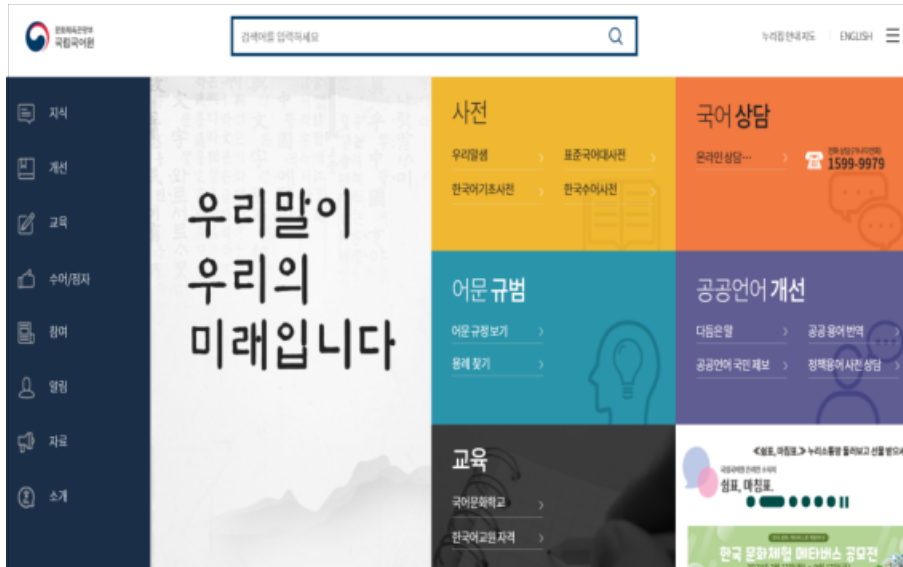


3 국립국어원

1) <https://www.korean.go.kr>



(국어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정보 수록)



4 한국고전종합DB

1) <https://db.itk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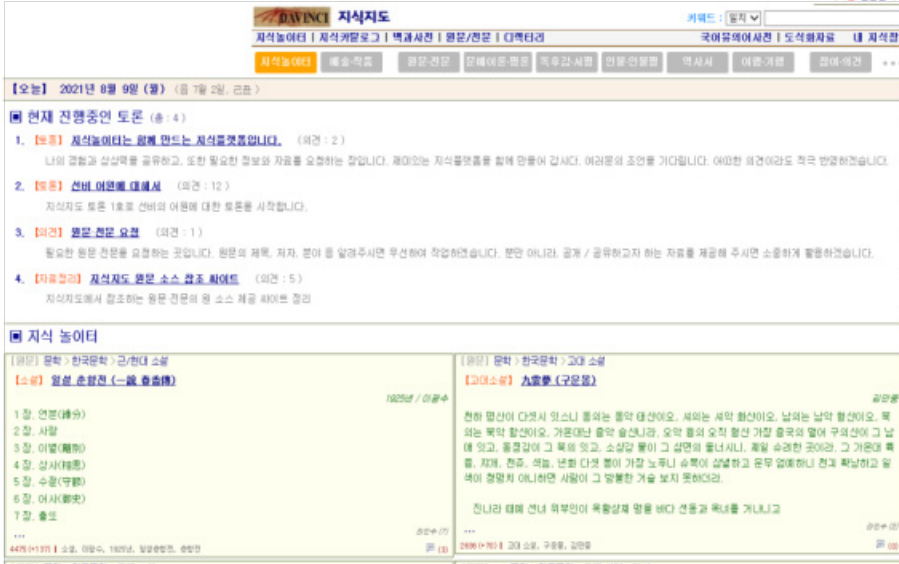


(고전문학 원전 및 번역서 탑재)



5 다빈치! 지식놀이터(문학 작품 원전 및 작품 해설)

1) <http://www.davincimap.co.kr/index.jsp>



6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1) <http://www.readread.or.kr>



(학년별, 분야별 추천도서 목록 탑재)



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1 상담시작 전 사전자료 조사 및 점검

학년,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내신 성적, 전국연합평가 등급 및 백분위 변화, 학원수강여부,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 사용하고 있는 수학교재(학원 제작 교재이면 상담 시 준비), 성격 검사 또는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 등을 통한 학생의 학습상황 체크

2 상담을 시작하며

1) 마음 열기를 위한 인사 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비대면 상담인 경우

-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집인가요? 저녁은 먹었나요?
- 비디오표 얼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반려견 있으면 같이 있어도 돼요)

대면 상담인 경우(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 장소로 오는 경우)

- 집에서 바로 왔어요?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 배고프지는 않아요? 저녁은 먹었어요? (준비된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 열기 시도)

2) 상담 신청 동기 또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 상담신청서에 적혀 있기는 한데 상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나요?

3 상담 중

수학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되어 있던데 내신인가요? 전국연합평가인가요?

상담 직전 성적(1회 고사의 경우 대략 몇 등급인가요? 대략 원점수 얼마였어요?)을 물어봅니다. 상담 기초자료에는 대부분 학기말 성적만 나오므로 1회 고사 성적 등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학 학습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단 학원시간, 학원숙제, 학교 숙제를 제외한 자기 주도적 수학학습시간을 물어봅니다. 또한 학원가는 시간, 과목, 학원 수업시간도 강의시간인지, 자습과 질문시간인지를 물어봅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학생을 꾸짖듯이 하지 않도록 유의) 또한 학생이 수학의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이 거의 없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학생은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 수학교재로 뭘 사용하는지를 물어보고, 직접 인터넷 서점사이트에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교재의 구성, 난이도, 분량 등을 학생과 같이 체크해 봅니다.
학원 자체 제작교재인 경우 보여 달라고 해서 구성, 난이도, 분량 등을 학생과 같이 체크해 봅니다. (단, 상담 사전에 준비를 요청)
-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수학 학습의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진로를 질문합니다. 이때 진로를 직업이나 학과까지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는 학생에게는 막연하게 살이 빠지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참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 살을 빼야할 수밖에 없으면 참고 하게 된다는 식의 예를 들면서 가급적 목표를 세우도록 독려한다.
※ 가이드북에 있는 학생들의 주요 상담질문을 참고하셔서 상담자의 질문을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4 상담 마무리

- 학생에게 상담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학성적이 향상되었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최소 2~ 3개월이 지났을 때, 학습 효과가 나오므로 당장 다음 정기고사에서 기대한 만큼 성적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 성격검사를 이용한 상담을 하셨을 경우에는 성격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바뀌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했으면 각 성격지표의 장단점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격려를 해 줍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 상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없나요?”라고 질문을 해서 학생이 하고 싶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추가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이때 하는 추가 질문은 앞선 상담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시간이 부족하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추수지도

- 상담시 제시한 코칭대로 학생이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수지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칭찬과 조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II

수학과 학습드림코칭 사례 Q&A



1 학습불안 관련 Q&A

| Q & A |

1
4

Q.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천을 자주 뒷전으로 미루다보니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신의 수학 공부 방법을 학습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이 어렵다면 수학 공부 학습량을 계획 세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단, 계획을 세울 때는 실천이 어려울 정도로 무리하게 세우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실천이 가능할 정도로 세워서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Q & A |

2
4

Q. 제가 수학 공부하는 양에 비해 성과가 안나와서 답답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A. 성적 상승에 학습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이 공부한다고 반드시 성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오는 주변 친구들의 수학 공부 방법을 물어보고 본인의 방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수학은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 좋지만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푼다고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며 안 풀리는 문제와 채점했을 때 틀린 문제를 체크해보세요. 체크한 문제들을 답지를 보지 않고 다시 풀어보고 안 풀린다면 그때 답지를 보고 풀어보고 답지를 안 보고도 풀릴 때까지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 💡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확실히 푸는 것을 중점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개념서 한 권과 문제 유형이 있는 책을 사용하여 개념서에서 수학 원리에 대해 학습한 후 활용문제를 푼다. 문제집은 같은 책을 최소 2번 정도 풀어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풀 때는 쭉 풀면서 어려운 문제나 틀렸던 문제, 모르는 문제는 체크 표시를 해둔다. 문제집을 다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완전 쉬운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을 풀고 머릿속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구상을 하면서 푼다. 세 번째 풀 때는 내가 체크해 둔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푼다. 또, 수학을 하루에 4~5시간씩 하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수학 문제 풀기' 처럼 작은 목표를 꾸준히 지킨다면 좋을 것 같다.
- 💡 수학 성적은 공부하는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을 잘 모르는데 문제의 양만 늘리는 것으로 100점은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한 후에 보통 수준의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매번 써요. 그 후에 점점 문제의 수준을 높여서 개념을 활용하여 풀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교과서를 통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교과서만 확실히 이해해도 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한 번에 집중해서 하기!

Q & A

3
4

Q.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부터 문제를 풀기가 싫어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학 공식은 외워도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까먹게 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르는 문제를 접할 때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싫어지는 것은 누구나 똑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를 접해보고요 이러한 문제가 많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일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바로 답안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해요.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거나 공식을 외워도 문제에 적용할 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다보면 고쳐질 거라 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수학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요?

Q & A

4
4

Q. 매번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학성적은 늘 제자리이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것 같아요. 결국 이 불안감이 시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내가 공부한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 수학 시험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생기고 공부할 부분은 많아져 수학공부를 해도 해도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성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장 수학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보고 꾸준히 노력했으면 해요.

성적이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했다는 반증입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길 '공부는 물살을 역으로 가르며 노를 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겠죠?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주변에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학원을 다녔다, 과외를 했다, 인강을 들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수학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학생들 중 일부는 공부의 총량은 늘리지 않고 수학 학습량만 늘린 경우 수학 성적이 오른 대신 다른 교과 성적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교과 성적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죠. 그러나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학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 패턴을 적어보면서 틈새 시간을 찾으면 간단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은 다른 교과와 달리 짧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 A

4
4

A.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성적은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매일 일정한 학습량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해 점검해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개념과 오답이 중요합니다. 개념은 수업 당일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중학교 개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수학 개념 문제집을 사서 복습했어요. 고등학교 입학 후 직접 양식을 만들어 정리하고 있어요.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헛갈리면 바로 펼쳐서 봅니다. 오답은 오려서 단원별로 모으고 있어요. 될 때까지 풀고 문제를 쪼개서 봅니다. 시험 전날 오답 중의 오답을 선별해 계속 풀었어요.

2 학습방법 관련 Q&A

Q & A

5
18

Q.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 융합된 문제는 배운지 오랜 시간이 지나 생각이 잘 나지 않고, 교과서와 다른 유형의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부라는 것이 할수록 어렵고 공부하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수학만 공부한다면 여유 있게 공부 시간을 배당할 수 있지만 다른 교과도 공부해야 하니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교과는 정의나 개념은 알아도 학생이 질문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연습과 반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에 일정한 개수의 문항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 틈새 시간을 만들어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읽고 예제, 유제 문제를 풀면 생각이 나지 않는 불상사는 줄겠죠? 교과서와 다른 유형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정하고 모범답안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답이 맞은 문제도 모범답안을 보면서 출제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번 풀다 보면 문제를 보기만 해도 풀이 전략이 떠오를 정도가 되겠죠? 시중 문제집은 기출 문제까지도 단위별로 문항을 분류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시험 중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단위인지 몰라 어떻게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한 것은 아닐까요? 시험 전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고 문항을 분석하면서 알고 있는 단원의 공식이나 개념을 암기해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단위까지 묶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지 예상도 됩니다. 시간에 쫓겨 많은 문항을 풀기보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스럽게 다뤄주세요.

Q & A

6
18

Q.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풀었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A.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군요!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의 의지가 훌륭합니다. 수학은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을 조화롭게 하는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도전하는 시간 동안 수학 학업 역량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 Q & A |

7
18

Q.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문제를 풀지 않아서 학교에서 배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A.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을 집중해 듣고 필기를 함께 한다면 혼자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 개념을 이해하고 반드시 해당 문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풀리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순 있지만, 혼자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EBSi에 무료 인강도 많아요. 공부에 의지가 안 생긴다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의지가 약해졌을 땐 동기 부여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칭찬 혹은 향후 대학에서의 제 모습 그리고 성적 향상으로 인한 보람을 생각해요. 그러니 문제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하기 보단 본인 스스로 노력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시며 의지를 갖는 게 더 필요하신 것 같네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분량의 문제를 풀어온 뒤 풀이 방법을 함께 의논하며 풀어보고,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하며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실력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풀지 않으려 한다면 친구들과 줌 스터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과 같은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한 뒤, 쉬운 단계의 문제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여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이 부담된다면, 매일매일 유형 복습을 착실하게 하고, 새로운 문제가 보이면 어떤 공식을 써서 푸는 것인지 연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 A

8

18

Q.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풀 때 암기하는 편이라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도 처음 보는 유형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처음 보는 유형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시험을 보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수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흰 종이에 설명하면서 적어보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안 풀리는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학습의 누수를 막는 것으로 실력을 탄탄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식의 증명과정을 이해하고 외웠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었지?'보다는 '어떻게 풀까?'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고 문제를 풀이를 외우는 것은 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제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표현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Q & A

9

18

Q. 수학 학원을 가는데 학원에서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니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수학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대로 된 개념 복습도 미뤄지게 되어 수학 공부에 대한 의지와 집념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많은 학생이 수학 진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본인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실천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학생이 학습을 계획하고 수업 후 복습 시간을 확보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혼자서 고민하고 학습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양만 숙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었죠.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책에 풀이를 적은 후 해설지와 비교도 하고, 틀린 문제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학습했어요. 뽁뽁하게 채워진 문제집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지켰는지 확인하고 서로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니 모든 과정이 뜻깊고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Q & A |

10
18

Q.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의 기초가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수학 공부의 양도 많고 잘하는 친구들과의 성적 격차도 큰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A.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성취감을 반복해서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과 2학년 1학기의 수학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함께 도울 멘토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쉬운 문제부터 풀고 실력을 쌓은 후 조금씩 어려운 문제로 도전하길 추천합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은 관련된 게 많아서 처음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중학교 과정을 찾아 공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남들이 노력할 때 나는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시 복습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 Q & A |

11
18

Q. 학교 수업과 사교육을 모두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는데,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올바른 학습 방법과 학습 시간을 알고 싶어요.

A.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기를 결심했다니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계획을 짜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 공부할 학습 단원과 시간을 정하고, 문제집에서 풀 문제 개수와 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효과적이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학습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100분을 활용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 Q & A |

12
18

Q.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데로 했을 때는 수학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맞게 공부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학원 선생님이 하라는 데로 따르는 게 맞을까요?

A.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수학 학습량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답니다. 다른 멘토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 Q & A |

13
18

Q. 내신 성적이 2등급,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3등급인데 더 성적이 향상되지를 않아요.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적을 더 올리고 싶은데,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방법을 찾고 싶어요.

A.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네요. 다만 지금 공부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결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능에 참고되는 EBS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으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도 중요하니 상위권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 A |

14
18

Q. 저는 공부할 때, 흥미가 있는 과목은 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재미도 없고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A. 수학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체험을 즐겨 보셨나요! 삼각함수, 규칙성찾기, 불가능한 도형, 테셀레이션 등 다양한 수학체험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수학이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 '수학체험전'을 검색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A.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학 추천 도서를 읽기, 수학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수학 관련 진로 강연이나 학과 안내에 참가하기 등 수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학문이구나! 라는 수학의 유용성을 느낀다면 수학 공부에 흥미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 도전의 횟수를 늘리고 세심하게 풀이 과정을 살펴본다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A.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살아가는데 사칙연산(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실생활과 관련이 없다 보니 재미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죠. 쉬운 문제집을 구입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해요.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당장 실생활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될 때 수학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Q & A

15
18

Q. 저는 중학교 때는 수학공부를 하지 않아 기초가 없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A. 이제부터라도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을 응원합니다. 중학교 수학을 알지 못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학교 수학을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복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분명 성장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일단 중학교 수학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하지 않은 만큼 남들보다 느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싶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 A

16
18

Q. 방학 기간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A. 방학은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습은 다음 학기의 과목을, 복습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활용합니다. 특히 복습은 모의고사 기출 1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평소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문제가 길면 문제를 읽다가 제시된 조건을 기억하지 못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다시 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한 번 읽을 때 시각화하여 기억하고 문제를 읽으며 문제를 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문제로 왔다 갔다 되돌아가며 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 Q & A |

17
18

Q. 수학 한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뒤에 있는 문제를 찍게 돼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할 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간을 정하고 푸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한 문제에 3~5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풀어 본다면 그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성취감 느낄 수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모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문제 풀이하며 사용한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개념을 활용하는 유사 문제를 풀이해보면 그 유형의 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직접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면 풀이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개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파악도 가능해요.

| Q & A |

18
18

Q.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어려운 문제보다는 교과서를 이용해 반복 학습을 하며 기초개념을 탄탄히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책이나 문제를 신경 쓰기보단 기본 유형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푸는 과정이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공식들은 한 줄씩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수학적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A. 교과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품고 모든 조건마다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따져 읽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고 논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찾거나 함수라면 그래프를 그려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개념에 관련한 문제를 풀 때는 대충 그럴듯한 감으로 풀기보다 교과서 정의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한 문제씩 성취하게 되면 개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명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논리를 알게 되어 더 확실하게 개념을 학습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나는 작은 공책에 수학 교과서에서 나온 공식과 꼭 암기해야 하는 공식들을 적어놓는다. 단순히 공식만 적어놓으면 암기하기가 힘들고 잘 기억나지 않아 그 공식이 적용된 문제를 같이 적어두어 어떨 때 이 공식이 활용되는지 공부한다. 또 유형별로 정의나 성질, 내용 등을 따로 정리해두고, 관련된 문제에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며,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 복습을 한다.

3 내신성적 관련 Q&A

| Q & A |

19
27

Q.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은 별도 문제집으로 복습하고 특히 부족한 단원은 반복해서 풀어보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 전엔 모의평가 문제도 풀면서 대비하는데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A.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여태 공부해왔던 방법을 부정하면 앞으로 공부가 더 힘들어집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분석해 보았나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채점의 결과인 점수만 확인하고 시험지를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제 교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출제 경향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문항을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의 단원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다시 읽어보세요. 문항 분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복습할 때 기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선생님의 출제 경향에 맞춰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는 한 단계 위의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 Q & A |




20
27

Q. 내신 등급이 나쁘진 않은데 시험 첫 장의 쉬운 문제를 틀려서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을 다지는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나요?

A. 내신 등급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개념 부족이라기보다는 계산 실수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첫 장을 자주 틀리는 것은 뒷장의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다 하게 되는 실수로 보입니다.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장을 풀 때는 더군다나 바짝 긴장하고 풀어야 합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겠지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쉬운 문제를 풀면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  등급이 잘 나왔어도 틀린 문제가 쉬운 문제이고 실수라면 어느 정도 간단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중간에 기분 전환을 위해 여러 쉬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나의 언어로 교과서 개념들과 헛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둡니다. 시험 준비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념을 상기시키고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며 헛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면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두고, 시험 보기 전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  매일매일 꾸준히 30문제씩 풀면서 오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 Q & A |

21
27

Q. 정기 고사 시험 시간 배분에 매번 실패해요. 시간 부족으로 당황해서 평소 하지 않던 계산 실수를 하게 되고 노력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을까요?

A. 평소 간단한 문제들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암산이 가능한 것은 바로 답을 유추할 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고 계산 실수를 유발한다면 최소한의 메모로 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신만의 훈련이 끝나고 계산 문제에 자신이 생기면 실수도 적어집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갖게 됩니다. 이때 문항의 점수를 빠르게 훑어보며 배점이 낮은 문항부터 풀 순서를 머릿속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문항의 배점은 난이도와 같아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풀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배점이 높은 문항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이 낮은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OMR카드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 체크할 때 시간이 촉박하면 틀린 답에 체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려운 문항을 풀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까지 모든 영혼을 끌어와서 집중한다면 정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시험시간이 부족한 건 문제를 푸는 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하거나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이전보다 시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막히는 문제는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푼 다음 나중에 한 번에 푸는 것도 시간 확보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Q & A |

22
27

Q.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시험 시간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A.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갖는 고민이라 생각됩니다. 잘하고 싶을수록 불안감이 커져서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TV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다 부자연스러움과 힘이 들어간 모습에 결과가 좋지 않고, 오히려 즐기겠다고 했던 무대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이 내신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 문항당 배점이 타 교과에 비해 크다 보니까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거예요. EBS의 맞춤 학습을 활용하여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만들고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 두면 시험 불안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평소 실력을 쌓아두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보세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시험 볼 때 긴장감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감은 시험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초조함으로 이어져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죠.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과 함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들(거의 앞번호 문제) 먼저 정확하게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모르는 문제를 붙들고만 있다 보면 잠이 와서 저는 넘긴 후에 나중에 다시 봤어요. 그러면 처음 봤을 때와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어느 정도 문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 문제가 안 풀린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면서 저는 시그마 배울 때 너무 못해서 눈물도 났는데 어느 순간 극복이 정말 됐어요. 문제 안 풀려서 자괴감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A23
27

Q.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지난 시험지나 다른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며 내신 대비를 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만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 봐 불안하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한 공부 방법이 따로 있나요? 내신 성적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맞는 걸까요?

A. 내신 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나와 다른 학교인 경우는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내신 문제뱅크를 추천받으세요. 카페에 가입하든 돈을 지불하고 문제를 받든 결국 자신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신 대비라기보다는 시중 문제집과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신 대비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나눠 주신 인쇄물이나 교과서 단원 종합 문제를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 가까울수록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바쁘실까 봐, 이런 문항을 물어보냐고 한심한 눈으로 보실까 봐 두려워 질문을 꺼린다면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예 기대할 수 없겠죠? 학원을 다니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인 학생들이 많아요. 시험 전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면서 대비한다고 해도 어차피 평소 공부량이 좌우합니다. 대비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커질수록 문제를 더 잘 풀게 되는 건 비밀!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 💡 공부는 자신이 직접 방법을 터득하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학원은 이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일 뿐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 💡 내가 얻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내가 복습도 안 하고 무조건 외워버린다면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학원을 다닐 이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3년간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해보니 수학은 아무리 좋은 강의와 학원이 뒷받침되어도 결국 내가 시간을 얼마큼 할애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것을 잘 지킨다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학습과 꾸준한 공부는 수학 실력 향상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많이 여쭙어보는 편이었는데 선생님께 질문하기 전 충분한 고민을 하고 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 학원에서 지난 시험지나 다른 학교 시험지를 푸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 한 번씩 풀어보고 시험을 봤지만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시다. 오히려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거나 교과서 또는 시험에 나온다고 하셨던 문제들을 여러 번 더 풀어보니 더욱 성적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 친구들이 한다고 나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과 학습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대비를 했는데 학원을 안 다닌다면 문제집은 펼쳐보지도 않고 시험을 볼 것 같아 꾸준히 학원을 다니며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 A

24
—
27

Q. 수학 시험을 볼 때 항상 계산 실수를 해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식을 정돈해서 쓰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것입니다. 특히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자신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같은 유형의 문제를 10개 더 풀어 본다 등 자신만의 페널티를 준다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Q & A

24
27

A. 계산 실수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우선 “신경써서 많이”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써보자”라고 말합니다. 아래 친구의 답변에도 있는 것인데, 글씨를 잘못 보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는 문제 풀이가 긴 경우가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풀이에서는 본인의 실수를 찾기도 어렵고, 또 글씨를 잘못 봐서 틀린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해 상담할 때는 풀이를 줄 맞춰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잘 쓰고, 정리도 잘하는데 계속 틀리는 경우는 신경을 써서 많이 풀어보라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계산 실수를 아직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 써서 푸는 경우는 틀리는 것이 덜 하지요. 집중해서 풀어보면 덜 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산 실수는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 계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직접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실수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덧셈, 뺄셈, 약분 등의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린 적도 있어요. 나는 최대한 문제 풀이가 끝나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려 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볼 때 3점짜리 문제에서 실수로 틀린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운 느낌도 들고 왜 그렇게 풀었지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풀이 과정을 막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풀이를 좀 더 예쁘게 써 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어서 놀랐습니다. 글씨를 정말 예쁘게 공들여 쓰라는 것이 아니라 풀이를 위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쓰고, 기호와 숫자도 알아보기 쉽게 썼더니 계산 실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풀이를 좀 막 쓰면 +2와 -12를 착각해서 실수한 적이 많았는데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썼더니 계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바로 찾아서 쓸 수 있어서 이 또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정신없게 풀어서 중간에 숫자를 잘못 봐 계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풀이를 최대한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검토할 때도 풀이가 한눈에 들어와 실수한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었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촉박할지라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 A

25
27

Q. 나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문제도 열심히 풀고 수업도 잘 듣고 수학 공부 시간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수학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를 하루 종일 100개를 풀었다면 실력이 향상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 그것을 극복할 때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보세요.

Q & A

26
27

Q. 내신 등급이 걱정입니다. 전에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연 공부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특히 수학은 더 그렇죠. 그러나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넘을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해 보세요.

Q & A

27
27

Q. 분명히 수학 수업 시간에는 이해도 잘되고, 문제도 잘 푸는데 시험만 보면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수학은 이해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도 순서와 숫자 형태가 달라지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자신만의 비법 노트 내용을 복습으로 확실하게 다지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수학 공부에 투자해 보세요.

A. 평소 문제를 잘 풀던 학생이 시험 성적은 실력보다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 아는데 틀렸어요'라고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고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왔다면 그렇게 속상할 일이 없었겠죠? 시험 중 자신의 실력 발휘를 못 했다면 시험 불안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를 똑같은 시간을 맞춰두고 별도의 장소에서 혼자 풀었을 때 평소보다 점수가 높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는 학생들은 더욱 불안의 정도 차이라고 보입니다.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불안감은 생각의 폭을 조이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심장의 두근거림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불안하다면 큰 숨을 쉬고 주위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도 성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세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 💡 시험을 볼 때에는 일정 시간 안에 다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때문에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이라도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은 적이 있다. 특히 긴장감으로 인해 실수한 적이 매번 있다. 공부할 때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대충 정해놓고 시간이 넘었다면 보류하고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 💡 풀고 있는 수학 문제집에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20문제 정도를 골라 실제 내신 시험처럼 50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내신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빠르게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풀었던 문제집, 교과서, 학습지 등에서 문제를 골라 시험처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전략을 빠르게 떠올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 '개념 숙지 부족, 조건을 제대로 읽지 않음' 등과 같이 그 원인을 분류하고 이를 보충하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 💡 아는 문제를 시험 시간에 풀지 못한 것은 시험에 대한 불안, 긴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어쩌지?'와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정하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아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모의로 여러 번 시험을 치러 보면서 시험에 대한 불안, 긴장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아는 문제를 시험 시간에 풀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문제를 완벽히 연습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나서 풀었지만 헛갈렸던 문제는 꼭 다시 복습해보아야 하고, 틀린 문제는 여러 번 복습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 💡 저도 1학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무작정 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선 교과서를 2회차 풀면서 개념을 익히고, 개념 문제집 1권을 1회차 풀면서 복습을 한 후 유형 문제집 1권을 1회차 풀면서 부족한 유형을 파악해야 해요. 그다음, 다시 교과서 4회차까지 풀고 부족한 유형 위주로 문제집 2권을 2회차까지 푼 후 '관다'로 내가 부족한 유형만 골라서 풀어보고 시험 직전에 교과서 5회차까지 푸니까 성적이 올랐어요.
- 💡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막막할 때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새로운 유형은 대부분 한 번에 맞출 수 없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 유형의 문제를 다시 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3 모의고사 관련 Q&A

Q & A

28
31

Q. 개념은 아는데 응용력이 떨어져서 모의고사 뒷번호 문제들을 잘 못 풀니다. 심화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틀렸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입니다. 노트에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분석하고, 풀이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적은 후, 몰랐던 공식이나 그래프 등 자신만의 풀이과정을 추가하면 응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A. 새로운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심화 문제의 유형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모의고사 심화 문제는 정말 어렵지요. 처음 보는 유형이고요. 우선 기출문제에서 그 번호의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준비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심화 문제는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혹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느껴진다면 그 개념을 다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준비가 됩니다.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겠지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기출문제 중 심화 문제들 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한 가지 풀이 방식 외에도 다른 풀이법이 있는지 공부했어요. 개념을 학습한 후, 동영상 찍어 강사처럼 설명해 보았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심화문제를 못 풀었더라도 집에 와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결하여 생각하려는 연습을 하고 있고, 풀이과정을 손으로 써보면서 막힌 부분의 이유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Q & A

29
31

Q. 학교 성적은 좋은데 모의고사 점수는 안 좋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차이가 날까요?

A.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신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기준으로, 그 학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 중, 하 수준의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지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의고사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을 접해보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같은 등급이어도 컷 점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의 3등급 컷은 60점, 3학년의 3등급 컷은 75점)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 이유겠지요. 즉,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유형이 익숙해져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모두 해결하기 때문이겠지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혀보기 바랍니다. 특히 3점 문제들은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간다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A

30
31

Q. 범위가 넓다 보니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많은 범위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의고사의 범위가 어마어마하지요. 3학년 수학능력시험은 수학 I, 수학 II, 그리고 선택 교과(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 또는 미적분)까지 해야 하니깐요. 수학 I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인데 다시 공부하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단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학 I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세 단원, 수학 II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입니다. 나머지 선택과목도 세 단원 정도씩 있지요. 총 9단원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한 단원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공식을 써보면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느라 그 전의 것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학년 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억이 나고, 익숙해지겠지요.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구구단을 처음 배우고 익힐 때는 그것도 실수가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많이 봤고,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수학 I, 수학 II의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나만의 공식집을 만들어 보세요. 공식집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문제집에 함께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 적어서 만들면 그것은 적으면서 기억나고, 어디에 무엇을 적었는지 더 잘 기억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찾다 보면 내가 개념이 약한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수능 때는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지요.



친구들이 알려주는 꿀팁!



학교 내신이 우선이라 내신 진도에 맞춰 공부를 하는데 미적분 뒷부분을 공부한다면 모의고사를 볼 때 앞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신 진도에 맞춰 공부하고 이미 배웠던 부분은 기초나 기본 문제집으로 감을 살려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일별로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을 학습하면서 일요일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공부하는 형식으로 공부해보세요.

Q & A

31
31

Q. 모의고사 성적은 볼 때마다 등급 편차가 좀 있어서 향후 수능 볼 때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 고등학생끼리만 하다 보니 현실적인 내 수능 점수가 예상이 안 가고 내신처럼 대학이랑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A.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모집 정원 중에서 정시로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선발되지 못한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40% 이상 정시에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 모두 나오면서 4년제 대학 6개를 설계할 때 대학 입학 수시전형(교과, 종합)에서 나에게 맞는 대학의 전형을 찾아볼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같은 내신이어도 평소 모의고사 등급에 따라 최저를 설정한 대학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나의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Ⅲ

수능 선택과목 소개 및 성적산출방식



1 수능선택과목

1) 수학 I

단원명	교과특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인문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각함수	
수열	

2) 수학 II

단원명	교과특성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I과 마찬가지로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I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오히려 수학I보다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변화율, 넓이에 대해 다루게 된다.
미분	
적분	

3) 미적분

단원명	교과특성
수열의 극한	수능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공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이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이공계열 진학에 필수이지만, 과목 특성상 복잡한 계산이 많고,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미분법	
적분법	

4) 확률과 통계

단원명	교과특성
경우의 수	수능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공부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비롯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	
통계	

5) 기하

단원명	교과특성
이차곡선	수능 선택과목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 비해 다소 내용이 삭제되어 학습량이 줄어들었지만, 3차원 입체 공간을 사고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가 큰 편이다. 도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다.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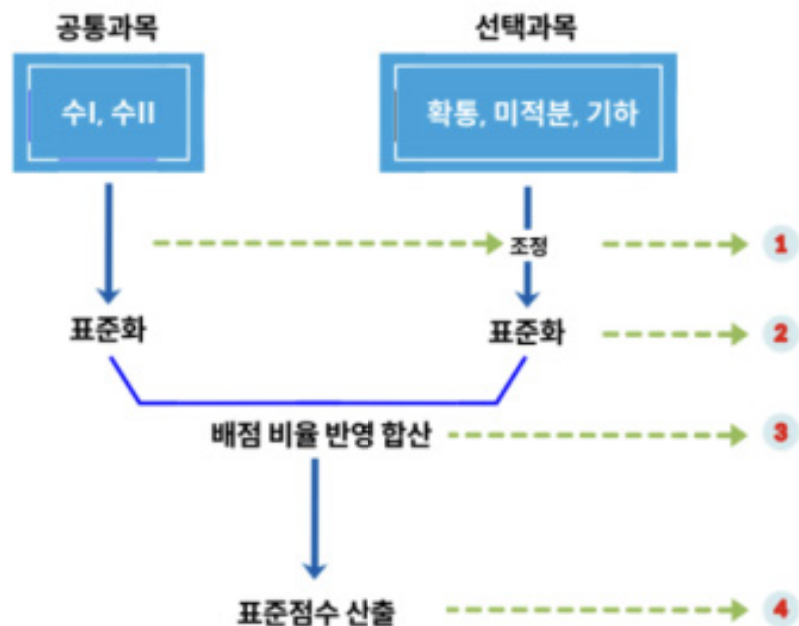
2 성적산출방식

1) 2022 수능 수학

구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과목	수학 I, 수학II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문항수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7문항 총 22문항	객관식 6문항, 단답형 2문항 총 8문항
배점	74점	26점

2) 수능 수학 표준점수 산출 방법

수능 수학 표준점수 산출 방식



① 1단계: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과정

$$X'_{2ij} = \frac{X_{2ij} - \overline{X_{2j}}}{S_{X_{2j}}} \times S_{X_{1j}} + \overline{X_{1j}}$$

- X'_{2ij} : j 선택과목 집단 i 수험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X_{2ij} : j 선택과목 집단 i 수험생의 선택과목 원점수
- $\overline{X_{2j}}$: j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
- $S_{X_{2j}}$: j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S_{X_{1j}}$: j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overline{X_{1j}}$: j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 위의 공식에 의해 선택과목 원점수를 조정함.

⇒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점수도 영향을 미침.

② 2단계: 표준화 점수 (Z점수 산출)

⇒ 공통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점수 산출

⇒ 표준화 공식을 이용하여 표준화 점수 산출

예를 들면,

구분	공통과목 원점수	선택과목 조정원점수
학생	60	55
수험생 평균	40	40
수험생 표준편차	15	15

$$\text{공통과목 Z점수} = \frac{60 - 40}{15} = 1.33$$

$$\text{선택과목 조정 Z점수} = \frac{55 - 40}{15} = 1$$

02 교과편(수학과)

③ 3단계: 표준화 점수의 가중합과 최종 표준점수의 산출

- ⇒ 공통과목(74점), 선택과목(26점) 배점을 기준으로 표준화 점수 가중합 산출
 ⇒ 표준화 점수 가중합을 평균 100점, 표준편차 20점인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위 학생의 예시)에서

공통과목 Z점수는 1.33 , 선택과목 조정 Z점수는 1

표준화 점수 가중합 = $(1.33 \times 0.74) + (1 \times 0.26) = 1.2442$

최종 표준점수 = $(1.2442 \times 20) + 100 = 125$

④ 해석

- : 선택과목에 따라 보정 공식에 의해 보정 점수를 통해 점수를 산출
 수험생 전체를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것
 선택과목별 난이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해서 등급을 산출하기 위함임.

3 수능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결과 예상

① 수능 수학 선택과목 선택 비율 (2021년 현재)

구분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60.5%	59%	55.4%
미적분	33.7%	34.6%	37.1%
기하	5.8%	6.4%	7.5%

⇒ 확률과 통계 vs 미적분, 기하 의 비율이 대략 6:4

(출처)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종로학원 하늘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개(6월 모평)

총 39만 9천 818명 중, 재학생 34만 2천 630명(85.7%)

졸업생등(검정고시포함) 5만 7천 188명(14.3%)

② 선택과목별 1등급 비율

구분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6%	7.5%	4.5%
미적분, 기하	94%	92.5%	95.5%

⇒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1등급 비율이 낮음 (표준점수가 불리한 경향성을 띠)

(원인 분석) ⇒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1등급을 불리하게 하는 원인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평가원이 공개한 공식으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면 해당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조정된 표준점수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임.

(예상되는 문제점) ⇒ 수능최저등급 과 교차지원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기 어렵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문과로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예상됨.

③ 변하지 않는 사실 : 공통과목(수학 I , 수학 II 에 집중하라!)

선택과목이 같은 경우, 공통과목 원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유리함!

(예를 들어)

- A학생: 공통50점, 선택15점
- B학생: 공통55점, 선택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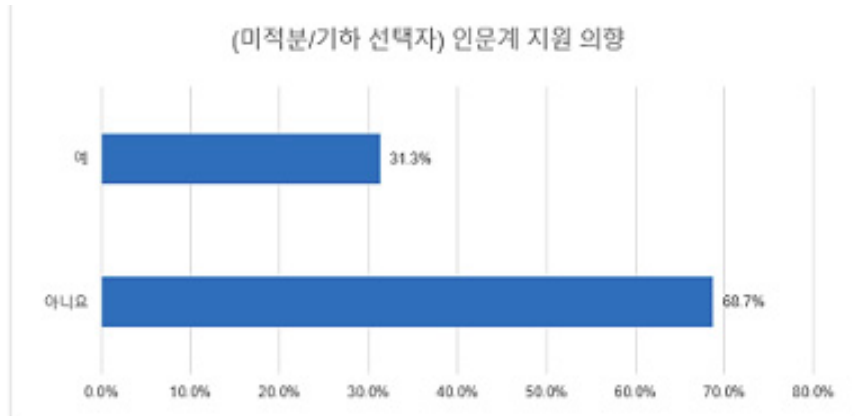
이라고 하면, 같은 원점수 65점 이지만, 표준점수 계산시 B학생이 유리.
즉, 공통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상위등급이 가능함을 기억하기 !!

④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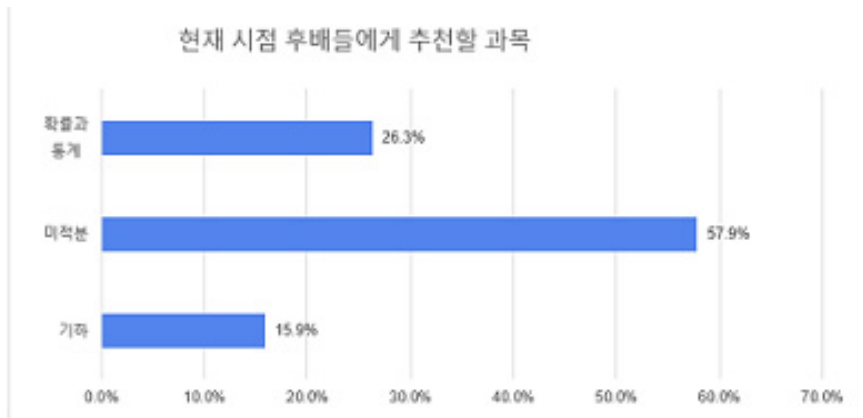
- 2022 수능 수학영역 선택과목 유불리 인식에 따른 설문 결과(6월 모평이후)
- 총 624명의 수험생(N수생 187명(30%), 고3 재학생 437명(70%)) 참여
 - 6월 모평 이후, 실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기하로 바꿀겠다는 응답 비율 13.2 %

02_교과편(수학과)

- 미적분/기하 선택자 중 31.3% 인문계열 교차지원 의사 표현



- 현시점에서, 후배들에게 미적분/기하 선택하도록 권할 것이라는 응답 70% 이상



- ⇒ 그러나 미적분/기하 선택자의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의 경우,
취업 전망이 걸리고, 교차지원을 한다고 대학수준을 몇 단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조사결과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 ⇒ 그러므로 인문계열 지원자의 과도한 불안감이나, 자연계열 교차 지원
예정자의 설부른 기대감은 금물
- ⇒ 변하지 않는 것은, 공통과목(수학 I, 수학 II)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
그리고, 수능 수학 선택과목이 실행되는 첫해인 만큼 결과의 추이 지켜보기!

IV

수학과 학습코칭 관련 도서 및 사이트 안내



1 추천도서 15선

1	제목	수학의 쓸모 (불확실한 미래에서 보통 사람들도 답을 얻는 방법)		
	지은이	닉 폴슨, 제임스 스콧(노태복 역)	출판사	더퀘스트(2020년)
	관련 과목	인공지능수학, 확률과 통계, 수학 I		
	주요 목차	I. 넷플릭스가 취향을 읽는 법: 확률이라는 언어 II. 주식 한 줄로 미래를 계산하기: 패턴과 예측 규칙 III. 데이터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베이지 규칙 (중략)		
2	제목	통계의 거짓말 (언론, 기업, 정치가는 통계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지은이	게르트 보스바흐, 옌스 위르겐 코르프(강희진 역)	출판사	Gbrain(지브레인)(2019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수학		
	주요 목차	1. 음양이론과 동전의 양면 2. 숫자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그림 3. 인과관계의 함정 (중략)		
3	제목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통계와 그래프에 속지 않는 데이터 읽기의 힘)		
	지은이	알베르토 카이로(박슬라 역)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2020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수학		
	주요 목차	1장. 차트란 무엇인가 : 차트의 요소와 시각적 부호화 2장. 같은 데이터, 다른 그래프 : 척도와 비례 3장.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집계했는가 : 데이터 신뢰도 (중략)		

02_교과편(수학과)

4	제목	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한다. (팩트의 홍수에서 진실을 골라내는 데이터 읽기의 기술)		
	지은이	신현호	출판사	한겨레출판(2019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수학, 일반사회, 통합사회, 환경, 보건		
	주요 목차	1부. 사기꾼 앞에 선 데이터 전문가: 인간 심리에도 패턴이 있다 2부. 쓰레기통을 뒤지는 데이터 전문가: 하찮은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3부. 페미니스트가 된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여성의 무기가 되다 4부. 8시 뉴스를 틈 데이터 전문가: 권력자들은 어떻게 속이는가		
5	제목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지은이	김승섭	출판사	동아시아(2017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수학, 통합사회, 보건		
	주요 목차	1.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 2. 질병 원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 3.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 4.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		
6	제목	x의 즐거움 (인생을 해석하고 지성을 자극하는 수학 여행)		
	지은이	스티븐 스트로가츠(이충호 역)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2014년)
	관련 과목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주요 목차	제1부 이걸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 수 제2부 원인과 결과, 투여와 반응,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 관계 제3부 눈을 즐겁게 하는 새로운 발견 : 형태 (중략)		
7	제목	법정에 선 수학 (수학이 판결을 뒤바꾼 세기의 재판 10)		
	지은이	레일라 슈넵스, 코랄리 콜메즈(김일선 역)	출판사	아날로그(글담) (2020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수학_명제, 논리학		
	주요 목차	CASE 01 찰스 폰지 사건-아메리칸 드림 다단계 사기의 실체 CASE 02 대학원 입학 시험 성차별 사건-UC 버클리 성차별 사건 CASE 03 루시아 더베르크 사건-간호사는 어떻게 살인범이 되었나 (중략)		

8

제목	수학 언어로 건축을 읽다		
지은이	오혜정	출판사	Gbrain(지브레인)(2020년)
관련 과목	수학_도형방정식, 수학1, 기하		
주요 목차	제1장 자연을 담은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제2장 수학, 과학의 왕이자 음악의 왕, 세종 제3장 더 길고 안전한 다리는 어떻게 만들까 (중략)		

9

제목	더 이상한 수학책 (펼치는 순간 단숨에 이해되는 미적분의 비밀)		
지은이	벤 올린(이경민)	출판사	북라이프(2021년)
관련 과목	수학Ⅱ, 미적분		
주요 목차	제1부. 순간 제1장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 미적분학이 소원을 들어준다 제2장 영원히 떨어지는 달: 미적분학이 우주를 설명하다 제2부. 영원 제16장 circle 그리고 원, 집단, 서클: 미적분학이 오이를 자른다 제17장 『전쟁과 평화』와 적분: 미적분학이 역사를 변혁하다 (중략)		

10

제목	수학은 실험이다 (다양한 실험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수학)		
지은이	구로타 토시로	출판사	수학사랑(2014년)
관련 과목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주요 목차	01 자유낙하를 이용하여 건물 높이를 재라 02 공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 03 유리구슬, 포물선을 그리다 (중략)		

11

제목	수학의 눈으로 보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영화와 소설, 역사와 철학을 가로지르는 수학적 사고법)		
지은이	나동혁	출판사	지상의 책 (2019년)
관련 과목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주요 목차	1. 수학의 출발점으로 날아간 로봇[월-E] 2. 기계 같은 인간, 인간 같은 기계 [이미테이션 게임] 3. 수학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라이어 게임] (중략)		

02_교과편(수학과)

12

제목	스토리가 있는 통계학		
지은이	Andrew Vickers(이근백)	출판사	(주)신한출판미디어(2021년)
관련 과목	확률과 통계		
주요 목차	CHAPTER 1. 통계가 네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 CHAPTER 2. 빌 게이츠가 식당으로 들어가니 CHAPTER 3. 빌 게이츠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니		

13

제목	수학에서 꺼낸 여행		
지은이	안소정	출판사	Humanist(2017년)
관련 과목	수학 I, 수학II, 미적분		
주요 목차	제1장. 에펠탑에서 기하학을 만나다 제2장. 베르사유궁전을 거닐다 제3장. 세인트폴대성당에서 속삭이다 (중략)		

14

제목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지은이	오스카 E. 페르난데스	출판사	프리렉 (2015)
관련 과목	수학II, 미적분		
주요 목차	1장 일어나서 함수의 냄새를 맡아보자! 2장 뉴턴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 3장 도함수로 이루어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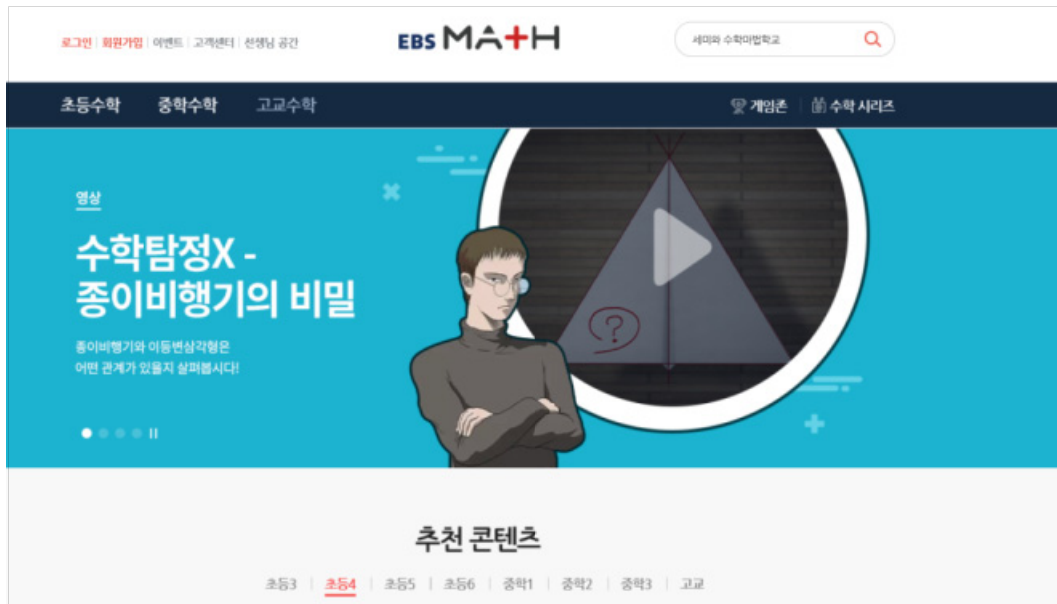
15


제목	엉뚱하고도 기발한 수학		
지은이	일본 코미디 수학 협회(김정환)	출판사	북스힐(2020년)
관련 과목	수학,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주요 목차	제1장. 직장에서부터 연애까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이야기 제2장. 초등학생도 매료되는 산수 이야기 제3장. 중학생이 깜짝 놀라는 수학 이야기 (중략)		

2 추천사이트

■ 학습 관련자료 사이트

- 1) **ebsmath** - 초3부터 고교까지의 수학관련 학습자료, 동영상 자료 제공
<https://www.ebsmath.co.kr/> 



- 2) **askmath** - 수학관련 학습자료(초중고), 체험활동, 동영상 자료, 수학클리닉 등
<https://askmath.kofac.re.kr/main.do> 



02_교과편(수학과)

3) 칸아카데미(수학) - 초1부터 중3까지의 수학 학습 사이트

<https://ko.khanacademy.org/>



■ 수학프로그램 제공 사이트

1) 알지오매쓰 (기하, 대수, 통계, 코딩 활동 자료)

<https://www.algeomath.kr/main.do>



2) 지오지브라(기하, 대수, 통계 관련 활동자료, 매뉴얼 제공)

<https://www.geogebr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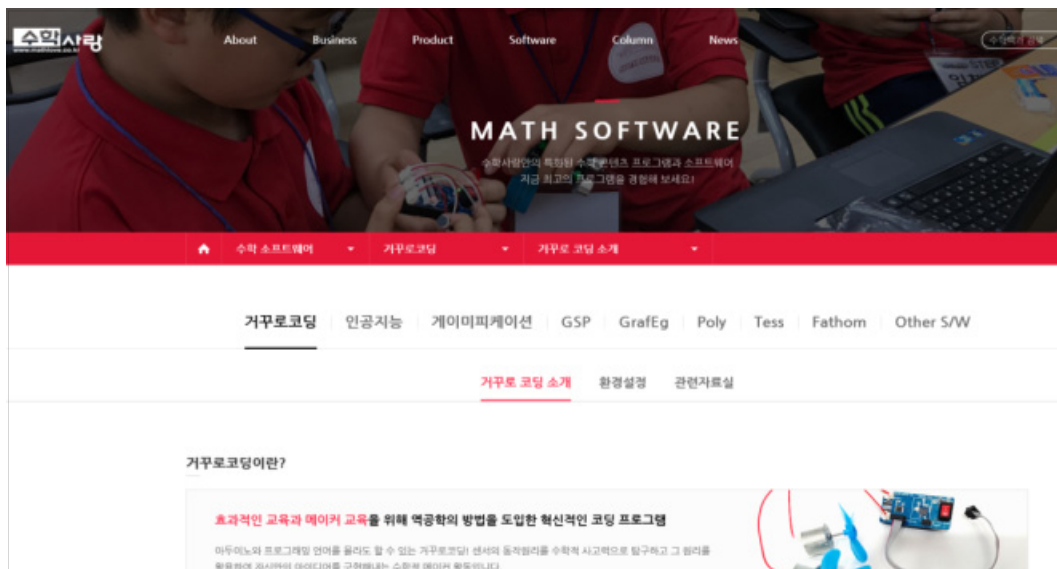
3) 데스모스 (그래프 프로그램)

<https://www.desmos.com>



4) 수학사랑 software 자료실(기하, 그래프 관련 프로그램 데모버전, 무료버전 제공)

<http://www.mathlove.kr/v2/software/software.html>



02_교과편(수학과)

데이터 제공 사이트

- 1) 통계청 통계교육원 - 통계관련 학습자료 및 교육 서비스 제공

<https://sti.kostat.go.kr/coresti/site/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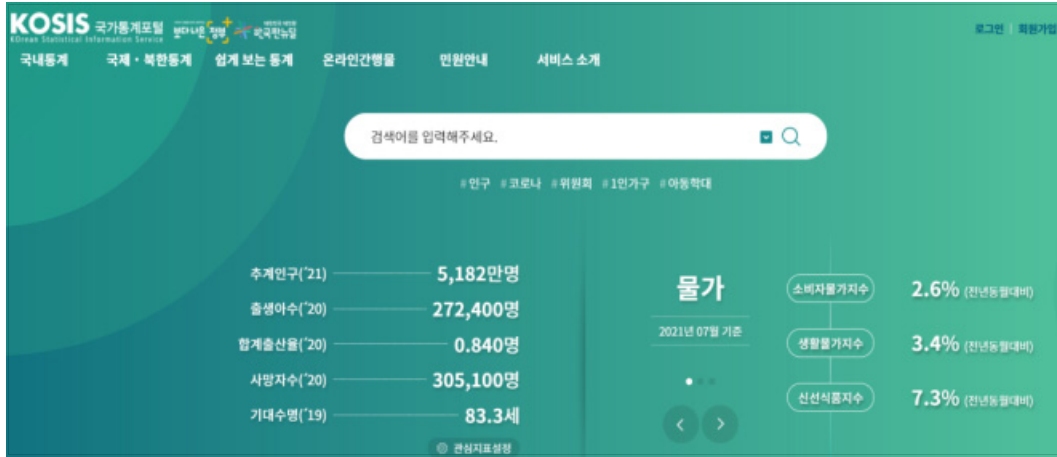
- 2)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 사용가능한 통계데이터 제공

<https://www.data.go.kr/>



3)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수학교육 - 수학 관련 행사 정보 및 체험활동 자료 제공

<http://www.ice.go.kr/main.do?s=icmath>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수학교육

인천수학교육 | 탐구체험마당 | 학생나눔마당 | 수학탐구프로젝트마당 | 수학클리닉마당 | 수학SW마당 | 교사소통마당 | 이벤트 마당

로그인 | 사이트맵

탐구체험 수학학생 동아리

보고, 만지고, 느끼는 수학!

제6회 인천수학축전

체험 ON, 나눔 온으로 무형의 수학, 진리에 다가가다!

인트로 바로가기

수학클리닉

수학불안감 자유 프로젝트!

수학딜러

일정이 없습니다.

수학사이트

즐거는 수학 문화

- AskMath
- EBSMath
- 사이언스올

교사소통마당

교사소통마당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영어과 학습드림코칭의 절차



1 상담시작 전 사전자료 조사 및 점검

가. 영어과 사전 질문지 응답 결과 분석

: 교과/학력평가 영어 성적, 흥미 및 관심, 영역별 학습 방법 등 파악

나. 재학 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분석

다. 사전 질문지 응답 결과 검토하며 온라인 대화(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칭이 필요한 부분 확인 필수

2 코칭을 시작하며

1) 마음 열기를 위한 인사 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비대면 상담인 경우

-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집인가요? 저녁은 먹었나요?
- 비디오로 얼굴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디오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대면 상담인 경우(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 장소로 오는 경우)


- 집에서 바로 왔어요?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 배고프지는 않아요? 저녁은 먹었어요? (준비된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 열기 시도)


2) 코칭 신청 동기 또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 코칭신청서에 적혀 있기는 한데 코칭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3 코칭 중반부 - 사전 질문지 분석 결과를 문답을 통해 확인

☞ ‘영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 인데, 무엇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중간/기말고사, ~월 학력평가) 영어 시험 성적은 어땠나요? 어떻게 얼마나 대비했나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준비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지 중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부족하다며 추가 문답을 통해 학생이 영어 학습에 겪는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더불어 혹은 1주에 영어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하루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추가적으로 학원 수강 여부/학원숙제/학교숙제를 제외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얼마나 영어를 공부하는지도 물어봅니다. 만약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을 꾸짖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영어의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거의 없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답을 통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학습 코칭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어 학원(혹은 인강)을 수강한다면 학원 수업(인강)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원 수강의 이유를 물어보며 학원 수업 수강 시간이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어휘/문법/독해 등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 학습 방법을 소개/안내하고 개인에 따라 맞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p.9~16 영어 영역별 학습 방법을 참조)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영어 학습 의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대입 준비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영어 공부도 중요하며, 수시 혹은 정시 지원과 관련하여 영어 성적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업이나 학과까지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영어 학습의 동기와 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코칭 마무리

☞ 상담 마무리 단계에서 단기간에 영어 성적이 상승하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며 영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영어 공부 시간이 누적되고, 스스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 3개월이 지났을 때, 학습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당장 다음 정기고사에 많은 성적향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격검사를 이용한 상담을 하셨을 경우에는 성격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바뀌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했으면 각 성격지표의 장단점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격려를 해 줍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작은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점과 도전 후 거둔 작은 성취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아효능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영어 학습드림코칭 사례(Q&A)



| Q & A |

1
9

Q.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A. 실력에 상관없이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좋은 표현을 익혀 스스로 연습하고, 사용하고, 응용한다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실력 향상은 끝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지치지 않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Q & A |

2
9

Q. 어떻게 하면 어휘를 잘 외울 수 있나요?

A. 어휘 학습의 경우 어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우기 귀찮고 외워도 자꾸 잊는다는 점을 들어 학기 중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아서 외우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금씩이라도 여러 번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어휘가 갖춰지지 않고서 어법 및 구조분석, 독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어휘를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Q & A |

3
9

Q. 긴 문장 해석이 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요?

A.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해지문 내용이 어려워지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한 긴 문장이 나오면서 해석이 안 되어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어림짐작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어법을 익히고 문장의 중요패턴을 숙지하고 적용 연습을 꾸준히 하여 정확한 구조에 따른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내용 이해도 잘되고 오답률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Q & A |

4

Q. 독해 시 내용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9

A. 해석을 잘하는 학생도 지문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석만으로 독해문제를 푸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해석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독해지문을 요약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지문의 길이가 길면 흐름에 맞게 간단한 요약연습을 하면 내용이해와 논리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 A |

5

Q. 매일 영어 공부를 해야 하나요?

9

A.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입니다. 특히 듣기 부분은 익숙해졌을 때 더욱 쉽게 들린답니다. 잊지 말고 매일 영어를 챙기세요.

| Q & A |

6

Q. 어법, 어휘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9

A. 최근 수능에서 어법성 판단 문제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문장의 기본 구성인 주어와 동사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관계대명사와 준동사 등 문장 구조와 동사 활용에 관련된 어법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어휘 유형은 문장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평소 독해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게 어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EBS 어휘 목록을 암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휘는 문맥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 Q & A |

7

Q. 영어 영역 독해 유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9

A.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기보다 영어의 기본 실력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 전체 단락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이 지문을 모두 읽었지만 선지에서 헛갈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학생은 평소에 8문제를 12~15분 정도의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하면 집중력과 글 읽는 속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빈칸 추론 문항의 경우 빈칸의 앞이나 뒷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지문은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S 지문의 한글 해석을 암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Q & A |

8

Q.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A. 우선 중요한 문장과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의 강약을 조절하며 읽는 연습을 하면 시간 조절과 정답률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빨리 독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복잡한 문장은 구조 분석을 해보고, 어려운 지문은 논리 전개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문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완벽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 A |

9

Q. 시험만 보면 쉬운 문제도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9

A. 시험이 다가올수록 심리적 불안 때문인지,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었던 쉬운 유형의 문제도 자꾸 틀린다면 걱정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풀어서 맞고, 틀릴 때마다 일희일비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될 뿐입니다. 전에 없던 실수를 자꾸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기본서'로 돌아가서 거기에 부족했던 것을 추가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Ⅲ

영어과 교육과정, 수능 출제와 대입 반영



1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고등학교			
공동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교과 I
영어	수능과목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실화영어회화 I 실화영어회화 II 심화 영어 I 심화영어 II 실화영어독해 I 실화영어독해 II 실화영어작문 I 실화영어작문 II

● 진로 선택 과목의 신설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 문학 읽기
✓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영어권 문화 이해와 세계인의 소양 함양	✓ 직업 및 진로 분야의 실무 영어 능력 함양	✓ 영미 문학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과서 없음

2015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어휘 수		
과목명		어휘 수
공통	영어(8)	1,800 내외
	영어 회화(5)	1,500 이내
일반 선택	영어 I (5)	2,000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5)	2,200 이내
	영어 II (5)	2,500 이내
진로 선택	실용 영어(5)	2,000 이내
	영어권 문화(5)	2,200 이내
	진로 영어(5)	2,500 이내
	영미 문학 읽기(5)	3,000 이내

2 수능 출제 방식 [간접 연계 - 주제·소재 연계 방식]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연계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수능까지는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11개 문항이 EBS 교재와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여 간접 연계로 출제되었고, 어법(29번), 어휘(30번), 빈칸 추론(31, 32번), 무관한 문장(35번), 글의 순서(36번), 문장의 적절한 위치(38번) 등 총 7문항은 EBS 연계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직접 연계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향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2018. 8. 17)’에 따라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모두 간접 연계로 전환하여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연계율을 거의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들도 상당수 출제되었으나, 어휘적, 구문적, 인지적 복잡도가 높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에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고난도 문항들이 대의파악, 상호작용(빈칸 추론), 간접 쓰기 등 다양한 모듈에서 1~2문항씩 출제되어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영역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듣기 및 말하기 출제 경향 분석

듣기·말하기 영역의 17개 문항 중, 순수 듣기 문항이 12개, 간접 말하기 문항이 5개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11번, 12번)과 대화 응답 2문항(13번, 14번), 담화 응답 1문항(15번)이 출제되었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목적, 의견, 대화자의 관계 등 추론적·종합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3문항, 그림과 표, 할 일·이유 파악, 지불할 금액, 언급되지 않은 것, 그리고 담화·대화 내용 일치와 같은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7문항, 2문항 한 세트의 복합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대화·담화 1문항과 달리 같은 담화 내용을 두 번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대화자의 관계(3번), 지불할 금액(6번),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9번), 짧은 대화 응답(12번), 복합 문항 유형(16~17번)을 제외하고 EBS 교재와 간접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대화와 담화가 제시되어 출제되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어법 및 어휘 출제 경향 분석

어법 및 어휘 문항은 작년 수능 및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각각 1문항씩(밑줄 어법, 밑줄 어휘) 출제되었다. 하지만, 작년 수능까지는 두 문항 다 EBS 교재와 직접

02 교과편(영어과)

연계로 출제되었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30번(어휘)만 EBS 교재와 간접 연계로 출제되었다. 어법 문항은 대명사 their의 활용, 주어와 be동사 is의 수일치, 관계부사 where의 활용, 동사의 태(능동/수동),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와 같이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 문항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문맥 속에서 어휘의 적절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읽기 및 쓰기 출제 경향 분석

읽기·쓰기 영역은 전체 26문항(어법, 어휘 문항 제외) 중 순수 읽기 문항이 20개, 간접 쓰기 문항이 6개가 출제되었다. 간접 쓰기 문항은 ‘무관한 문장’ 1개(35번), ‘글의 순서’ 2개(36번, 37번), ‘문장의 적절한 위치’ 2개(38번, 39번), 그리고 ‘요약문 완성’ 유형의 문항이 1개(40번) 출제되었다. 읽기 문항은 대의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목적(18번), 심경 변화(19번), 필자의 주장(20번), 함축의미(21번), 요지(22번), 주제(23번), 제목(24번))이 7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도표(25번), 내용 불일치(26번), 실용문 내용 일치·불일치(27~28번))이 4개 출제되었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한 단어’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1개(31번), ‘긴 어구’나 ‘절’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3개(32~34번), 총 4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단일 장문(1지문 2문항(41~42번)) 유형과 복합 장문(1지문 3문항(43~45번)) 유형이 각각 한 세트씩 출제되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총평

EBS 교재와 직접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 없이, 주제, 소재, 요지 연계 방식의 간접 연계로만 총 11문항(어법, 어휘 문항 제외)이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문항 유형 특성상 보통 정답이 뒤 번호에 위치하곤 했던 도표(25번)와 글의 순서(36번),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38번) 문항의 정답이 앞 번호에 배치되어 문항 유형에 따른 정답 배치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수험생들의 정답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참 고 자 료

EBSI 접속 - 모의고사 - 연계내역분석 - 70번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연계내역분석 참조
(EBSi 홈페이지 - <https://www.ebsi.co.kr/ebs/pot/poti/main.ebs>)



3 정시 영어영역 반영 방법(2022학년도 정시 모집 기준)

수능 영어영역(절대평가) 대학별 정시모집 등급별 점수(예시)

대학명	전형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고
가천대	일반전형1	98	95	92	86	80	60	50	40	30	
	일반전형2										
가톨릭대	의예과(가산점)	10	9.5	9	8.5	8	7.5	7	6.5	6	• 의예과 ⇒ 등급별 가산점 부여 • 일반학과 ⇒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인문/사회/자연/공학	200	196	192	188	180	170	160	150	0	
강남대	일반학생	100	95	90	80	70	50	30	10	0	
건국대	KU일반학생(인문)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KU일반학생(자연)	200	198	196	193	188	183	180	170	160	
경기대	일반학생	100	98	94	86	70	50	30	10	0	
경희대	일반전형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일반전형	0	-3	-6	-9	-12	-15	-18	-21	-24	
광운대	일반학생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국민대	일반학생	100	98	95	90	85	80	75	70	0	
단국대(죽전·천안)	전계열	100	97	92	80	70	40	15	5	0	
	의학	100	80	70	40	30	20	15	5	0	
동국대	일반전형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명지대	수능우수자	100	98	96	90	80	60	40	20	0	
상명대(서울·천안)	수능전형	100	98	96	94	90	80	70	60	40	
서강대	일반전형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경대	일반학생	100	90	80	70	50	30	20	10	0	
서울대(영어)	일반전형	0	-0.5	-2	-4	-6	-8	-10	-12	-14	
서울대(제2외국어·한문)	일반전형	0	0	0.5	1	1.5	2	2.5	3	3.5	• 3등급 이하 0.5점씩 감점
서울과학기술대	일반전형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서울시립대	일반전형	250	248	244	240	236	232	228	224	0	
성균관대	일반전형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세종대	일반학생	200	195	190	180	160	140	120	100	0	
성결대	일반전형	100	90	80	70	60	50	35	20	0	
수원대	수능위주	100	97	94	91	88	81	71	56	41	
송실대	일반전형	200	194	186	173	144	116	87	44	0	
아주대	10% 반영 시	100	96	92	84	60	40	20	10	0	
	20% 반영 시	200	192	184	168	120	80	40	20	0	
안양대	수능위주	100	95	90	85	80	65	50	30	0	
연세대(서울)	일반전형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울지대	일반전형 I, II	100	95	90	80	70	60	50	30	10	
인천대	일반학생	100	98	95	80	70	60	30	10	0	
인하대	일반전형	200	198	194	185	170	150	120	80	0	
중앙대	일반전형	100	98	95	92	86	75	64	58	50	
한국산업기술대	일반학생	80	72	68	64	48	40	24	16	8	
	수능우수자	160	144	136	128	96	80	48	32	16	
한국외대	일반전형(인문)	140	138	134	128	120	110	90	60	0	
	일반전형(자연)	105	104.5	103.5	102	100	97.5	94.5	90	0	
한국항공대	수능위주	136	133	128	123	118	113	108	103	98	
한성대	일반전형	100	97	94	80	70	55	40	25	10	
한신대	일반학생	100	95	90	85	70	60	50	30	20	
한양대	인문·상경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28	
한양대(에리카)	인문·상경·자연	100	99.5	99	98	96.5	95	92.5	90	85	
홍익대(서울/세종)	일반전형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덕성여대	수능100%전형	100	98	94	80	70	60	50	40	0	
동덕여대	일반전형	100	97	91	82	70	55	40	20	0	
성신여대	일반학생	100	97	94	85	60	40	25	10	0	
서울여대	일반학생	100	97	94	80	65	50	35	20	0	
숙명여대	일반학생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이화여대	수능전형	100	98	94	88	84	80	76	72	68	

출처: 2022학년도 대입전형 미리보기 Preview p.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IV


영어 영역별 학습 방법




1 어휘 학습 방법

“영어의 4 Skills(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의 기본!”

■ 고교 필수 어휘 학습 (6000~8000개의 필수 어휘를 습득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

- 교과서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되는 어휘를 분량을 정하여 매일 꾸준히 반복하여 학습
- 어휘학습 어플리케이션 적극 활용 (클래스 카드 - <https://www.classcard.net/> 등) 

■ 어휘의 우리말 뜻 단순 암기 지양 (기계식 암기 지양, 유의미한 학습 지향!)

- 어휘의 철자와 정확한 발음을 함께 학습 (듣기와 쓰기 학습에 효과적)
-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영영사전 활용
- Online Concordancers(<https://www.lex tutor.ca/conc/>)를  활용하여 예문과 함께 어휘의 실제적 사용 학습
- 1일 N개씩 학습한 후 3일 차에 1,2일 차를 복습하는 방식 필요
[예시] 1일 50개 어휘(표현)를 공부하는 경우

일차	1	2	3	4	5	6	7
학습량	1~50번	51~100번	1~100번	101~150번	151~200번	101~200번	1~200번
발음/철자/의	발음/철자/의	발음/철자/의	1,2일 차	발음/철자/의	발음/철자/의	4,5일 차	3,6일 차
방법	미/예문 활용 암기	미/예문 활용 암기	모르는 어휘 위주 암기	미/예문 활용 암기	미/예문 활용 암기	모르는 어휘 위주 암기	모르는 어휘 위주 암기

■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 찾기 (메타인지 활용하기!)

- 어휘의 철자 쓰기, 뜻(우리말, 영어)을 찾아 눈으로 읽기, 발음 듣기, 발음 따라하기
- 다른 영역이나 교과 학습에 지장 없는 수준의 분량을 스스로 정해 매일 학습
- 자신만의 단어장 만들기 1 (동의어, 다의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등 정리)
(대수능 기출 어휘 문항에서 선택지로 제시된 어휘 학습 목록 활용 [붙임1] 참조)
- 자신만의 단어장 만들기 2 (반복적으로 잊거나 헷갈리는 표현 정리)

■ 어휘 추론 전략 학습 (간혹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 독해 혹은 문제 풀이 시 모르는 어휘의 뜻을 문장과 지문의 전체적 맥락으로 추론
- 자신이 알고 있는 접사나 어근에 근거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

[붙임1] 2014~2022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대수능 어휘 관련 기출 문항

실시	밑줄 어휘 / 네모어휘(굵은 글씨가 정답) / 어구의 함축적 추론(2019 6모 이후)
2022 6모 42번	similarly, easier(→ harder), circulated, interference, pose
2022 6모 30번	identifying, passionate, failure, increase(→ ignore), defeated
2022 6모 21번	an empty inbox의 문맥적 의미
2022 수능 21번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의 문맥적 의미
2021 수능 30번	quantities, opposite, match, influenced, lacked(→ had)
2021 수능 42번	product, visualize, internal, complex(→ simple), observed
2021 9모 42번	minimum, follows, close(→ little), the same, mistakenly
2021 9모 30번	more, ironic, unrelated, inappropriate(→ appropriate), accessible
2021 9모 21번	don't knock the box의 문맥적 의미
2021 6모 42번	combined, favours, guaranteed, decrease(→ increase), ensures
2021 6모 30번	struggle, memory, improbable(→ possible), mentally, start
2021 6모 21번	journey edges의 문맥적 의미
2020 수능 21번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의 문맥적 의미
2020 수능 30번	establish, consistent, unsatisfactory, denying(→ conceding), sensible
2020 수능 42번	manipulating, inherent, missing, Uncertainty(→ Clarity), extends
2020 9모 21번	a cage model의 문맥적 의미
2020 9모 30번	challenges, enabled, advantage, attack, optional(→ essential)
2020 9모 42번	extract, relevant, insufficient, observe, extended(→ constrained)
2020 6모 21번	"Garbage in, garbage out"의 문맥적 의미
2020 6모 30번	realizes, forbid(→ motivate), sincere, suspicious, breaking
2020 6모 42번	excluded, common, unsurprising, protect, promising(→ dangerous)
2019 수능 21번	refining ignorance의 문맥적 의미
2019 수능 30번	uncertain, weakens, vulnerable, advantage, laboriously(→ easily)
2019 수능 42번	separated, promoted(→ disrupted), limited, pay, develop
2019 9모 21번	a link in a chain, a phrase in a process의 문맥적 의미
2019 9모 30번	available /unavailable, predicting /preventing, necessary /unnecessary
2019 9모 42번	coloured, interpreted, randomly(→ systematically), employed, factual
2019 6모 29번	None의 문맥적 의미
2019 6모 42번	change, expected, same, disregarded(→ loved), earlier
2018 수능	time, found(→ lost), catalog, learn, waited
2018 9모	disappointed/ satisfied , artistic /real, free /inseparable
2018 6모	denying/ rationalizing , physical/ mental , early /later
2017 수능	based/ lost , allows /forbids, mostly/ never
2017 9모	concentrated /limited, blended/ subdivided , resistant/ responsive
2017 6모	preset/ self-selected , automatically /intentionally, consistency /variation
2016 수능	accommodation/ destruction , lacked /supported, competing /cooperating
2016 9모	respective, lack, caused, absence(→ presence), agreements
2016 6모	solitary /social, insufficient/ abundant , overwhelm /overestimate
2015 수능	fuses /replaces, diversity/ precision , underlies /undermines
2015 9모	exceeds, property, remains, maximum(→ minimum), depressing
2015 6모	increasing /decreasing, promote/ regulate , rejected/ signed
2014 수능A	frequently/ rarely , attractions/ distractions , decrease /increase
2014 수능B	pressure, thinner, essential. evade(→ take over), preferred

2 문법(구문) 학습 방법

“문법 =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 규칙을 적용하고 나아가 응용하라!”

■ 문법 기본 체계 이해 (Just like 수학의 공식!)

- 품사, 문장의 형식, 문장 필수 구성 요소, 서술어 등 기본 개념 이해 및 숙지
- 주요 문법 및 문장 구조의 형태 이해 및 숙지

■ 문법(구문) 사용된 문장 예시 찾아 정리 (적용과 응용을 위한 필수 학습 방법)

- 빈출 문법 및 문장 구조가 사용된 문장들을 찾아 목록화시켜 노트 정리






[붙임2] 2014~2022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대수능 어법 기출 문항

실시	밑줄 어법/ 네모 어법
2022 6모	대명사 their, 수 일치(주어동사), 관계부사 where, 능동/수동(현재완료수동), 병렬구조(both A and B)
2021 수능	과거분사, 대명사 it, 형용사/부사, 수 일치(주어동사), 명사절 접속사 that
2021 9모	관계대명사/관계부사, 수 일치(주어동사), 형용사/부사,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대동사 do
2021 6모	이유의 접속사 as, 절 안에서 동사/동명사, 능동태/수동태, 명사절 접속사 that, 주격 관계대명사 who
2020 수능	수 일치(주어동사), 접속사 as, 부분 표현의 관계대명사 which, 현재/과거분사, 재귀대명사
2020 9모	목적격보어(to repeat), 도치(only when~,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재귀대명사, 동사/현재분사, whose
2020 6모	목적격보어(appealing), 병렬구조(동사), 의문대명사 what, 수 일치(주어동사), it(it takes 시간 to do)
2019 수능	전치사 to+~ing(전치사 목적어 형태), 대동사 do/be동사, 대명사(those/that), 관계사, 병렬구조(동사)
2019 9모	전치사+관계대명사(by which), 재귀대명사, to부정사, 형용사 보어, 관계대명사 what
2019 6모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대명사 it, 병렬구조(동사), 능동 분사구문
2018 수능	접속사 whether, 수 일치, 현재분사(진행), 대명사(them), to 부정사(stop to do)
2018 9모	과거분사(수동), 현재분사(능동/진행), 형용사/부사, 대명사(their), 관대 what
2018 6모	능동/수동(분사 형태), 대명사(its), 병렬구조(동사), 부사(과거 분사 수식), 관계대명사 that
2017 수능	대명사(those), 과거분사(보어), 과거분사(수동태), 관대 what, the 형용사(수 일치)
2017 9모	형용사/부사, which/in which, 동사(ended)/ending
2017 6모	수 일치, 형용사(보어), 대명사(its), 현재분사/과거분사, 관대 what
2016 수능	대명사(their), 과거분사(수동), 부사/형용사, 동사(caused)/causing, 동명접 that
2016 9모	with 분사구문(능동/수동), 부사, 수 일치(a number of), 과거분사, 가S-진S that
2016 6모	관계대명사 who, 부사, 동사(restricts)/restricting, 대명사(it), 비교급(than)
2015 수능	동사(devastated), 형용사구, 동사(meant)/meaning, 관계부사 where, 수 일치
2015 9모	현재분사/과거분사, 능동태/수동태, it/them
2015 6모	관대 that, 수 일치, 부사 alike, 수동태, 전치사+동명사
2014 수능A	과거분사, 명접 that, 형용사(주격 보어), stop+~ing, 원형부정사(목적격 보어)
2014 수능B	관대 that, 동사(sends)/sending, to 부정사(목적), 부사, 과거분사


3 독해 학습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읽고 이해하는 것이 독해이다!”

독해의 전략 이해 및 적용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읽는다!)

-  Skimming: 빠르게 읽고 주제를 찾는다!
(반복되는 어구를 살피고,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구체적인 것은 제외한다!)
-  Scanning: 빠르게 읽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다!
-  Predicting: 다음 상황 혹은 맥락을 예측하며 읽는다!
-  Inferencing: 어구나 문장의 숨겨진 뜻을 알아차린다!
-  Visualizing: 읽은 내용을 시각화(도표, 그래프, 수형도, 그림 등)시켜 이해한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반복 연습하여 해석과 이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  문장의 형식 파악하기: 주어와 동사를 빠르게 찾는다!
(영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문장의 첫 머리에 위치하므로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주어 앞에 오는 경우 주어 앞에서 끊어서 주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 residents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2020 고2 3월 학평 35번]
- 2)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was seven digits long, / 63% of them chose the cake. [2020 고2 3월 학평 40번]
- 3) To get new knowledge, / you, as a researcher-explorer,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established facts)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 [2020 고2 3월 학평 24번]

(주어를 꾸며 주는(수식하는/한정하는) 말(후치 형용사구/절-형용사구, 전치사구, to부정사구, 현재/과거분사구, 관계대명사/관계부사절 등)이 길어서 주어부가 긴 경우 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 때 조동사나 be동사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조동사나 be동사 앞에서 끊어 읽어 본다.)

02 교과편(영어과)

- 1) Even companies / that sell physical products to make profit / are forced by their boards and investors to reconsider their underlying motives and to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onsumers.

[2020 고2 3월 학평 34번]

- 2) Also, the belief that it will rain tomorrow / can be tested for truth by waiting until tomorrow and seeing whether it rains or not.

[2020 고2 3월 학평 38번]

구 앞에서 끊어 보자!

(구라는 것은 보통 3단어 이상이 모여진 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다.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구’이며 ‘관사+형용사+명사’인 경우는 명사구라한다. 또한 ‘to부정사’로 시작하면 ‘to부정사구’, ‘동명사’로 시작하면 ‘동명사구’이고 ‘현재/과거분사’로 시작하면 ‘분사구’이다. 따라서, 구 앞에서, 즉 전치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

- 1) They are the ones / who have the freedom to point out these problems and criticize them / without risking their job or their career. [2020 고2 3월 학평 20번]

- 2) Indeed, scientists often learn more /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than / from those that do. [2020 고2 3월 학평 24번]

절 앞에서 끊어 보자!

(등위 접속사 ‘and’, ‘but’과 ‘or’는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그리고 절(문장)과 절(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말이다. 등위 접속사의 경우 ‘세모’로 표시하면 문장의 병렬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어끼리 연결하거나 짧은 어구끼리 연결하는 경우 끊어 읽지 말고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Ford considered the camera to be a window / and the audience to be outside the window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2020 고2 3월 학평 30번]

- 2)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faces, I realized they were all waiting for me to begin, / but by now I knew I couldn't continue.

[2020 고1 3월 학평 19번]

- 3) The constant feelings of inadequateness / created by advertising / have been suggested to contribute to children becoming fixated with instant gratification / and beliefs that material possessions are important. [2020 고1 3월 학평 22번]

(다양한 종속접속사(시간-as, when, while, after, before, since, as soon as, by the time 등, 이유-because, as, since 등, 양보-(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등)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서 끊어 읽는다. 종속접속사 혹은 명사절접속사 that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므로 주어가 길 경우 반드시 동사 앞에서 끊는다. 종속접속사로 문장이 시작했다면 보통 주절이 시작하기 전에 'comma(,)'가 나오므로 형태를 주의하여 읽는다.)

- 1) This means that beliefs can be tested to see / if they are correct or false. [2020 고2 3월 학평 38번]

- 2)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 because basic survival depends on the ability to perceive causes and predict effects. [2020 고2 3월 학평 32번]

- 3) Advertisers have admitted to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 that it is easy to make children feel that they are losers / if they do not own the 'right' products. [2020 고2 3월 학평 35번]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는 경우 앞에 나온 명사(선행사)를 뒤에서 꾸며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계대명사/부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단 이러한 부분의 연습이 잘 되는 경우에는 굳이 끊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사와 관계대명사/관계부사 사이에 'coma(,)'가 나오면 'coma(,)'를 '그리고' 혹은 '그런데'로 해석하고 이어가며 읽고 해석해 본다.)

02_교과편(영어과)

1) you can make these “outsider” assessments of your organization on your own and use / what you determine to advance your career.

[2020 고1 3월 학평 20번]

2)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 which requires extra labor and cost. [2020 고2 3월 학평 18번]

3) The known fact of contingencies, without knowing precisely /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 shows that disaster prepara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disaster rehearsal. [2020 고1 3월 학평 21번]0

3 문단의 구성 원리와 방식 (맥락을 이해하며 Smart하게 읽는다!) —●●●

■ 문단의 구성 원리

- 1) **통일성**: 한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며 모든 문장은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비고: 무관한 문장 고르기)
- 2) **일관성**: 한 단락은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므로 2개 이상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고: 목적/주제/제목/요지/주장 추론 및 빈칸 추론)
- 3) **응집성**: 한 단락의 모든 문장은 지시어, 연결어 등에 의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고: 글의 순서 정하기, 문장 들어갈 곳 파악하기, 연결사 추론 등)

■ 문단의 구성 방식

- 1) **일반적 의견/통념 + 반전, 과거와 현재 대조, 불확실한 현상/견해 + 필자의 생각**
 - ① traditionally, typically, generally(in general), widely, many, all, most of, 일반인 주어(we, you, one) 등
 - ② it is said / believed / thought / assumed that ~
 - ③ in the past, in 과거년도, used to~ / would, at first / initially, traditionally
 - ④ It seems(seemed) / appears(appeared) that ~ / 주어 may(might) / could ~

2) 주제 관련 사건 + 일반화/시사점(주제 제시)

- ① 특정한 사건(주로 과거)이나 현상(과거나 현재)을 진술
- ② 과학 소재 지문의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

3) 문제 제기 + 원인 분석 / 문제 제기 + 해결책 제시

4) 구체적인 사례(구체적 상황 설정) + 일반화(주제 제시)

- ① Suppose, Imagine, Consider, Let's say, Let's take a look at
- ② If ~, When ~ / No signal(보통 특정 인물(단체)이나 장소의 일화로 시작)

5) 개념 설명 + 구체화(설명/예시 등)

6) 질문 + 질문에 대한 답 제시

7) 주제 + 예시 / 전문가 인용 / 연구, 실험, 통계, 조사

4 듣기[말하기] 학습 방법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

■ 어휘 학습이 중요하다!

- 우리말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발음, 강세, 단어끼리의 연음법칙 등을 제대로 알아야 듣고, 말할 수 있다!

■ Shadowing

- Shadowing: 한번은 스크립트가 없이, 다음은 스크립트를 보며 한 박자 느리게 따라 읽기 (입으로 정확히 소리를 내야만 귀에 정확히 들린다!)

■ 문제 풀이 [한 번 흘러간 내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문제 유형별 전략

- 1) 선택지가 영어인 경우 듣기 전 선택지 먼저 읽기 (듣기 내용 가정&예측)
- 2) 계산 시 메모는 필수
- 3)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 구분하여 듣기

5 쓰기 학습 방법

“문법을 잘 알면 쓰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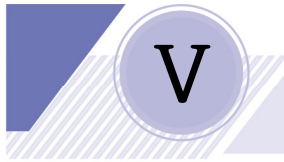
■ 문법 학습을 하며 문장을 익힌다!

■ 주요 문법(구문)을 학습할 때, 예시 문장을 손으로 써보며 분석

■ 우리말을 잘 써야 영어도 잘 써진다!

■ 네이버 파파고 또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영/영한으로 변환하며 의도한 문장이 잘 써지는지 확인

■ 길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보다 간결하고 요지가 잘 담긴 문장이 더 좋은 문장



학교 평가와 수능(학력평가) 대비 학습 방법



1 지필평가 학습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

■ 지필평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서 나온다!

-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에 집중하며 수업에 충실하기
- 가능한 빨리 자주 복습하기(시험 기간만 활용하기보다 평소에 복습할 것)
- 지문의 전체 맥락을 반드시 파악하기

■ 시험 기간 학습 과정 및 방향 예시

1) 정확한 해석(문장 구조 분석) + 어휘(표현)/문법 공부

- 문장 해석, 주어 동사 구분 등

2) 주제/빈칸/맥락을 생각하며 학습

- 대부분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드러남
- 글의 주제를 우리말로 표현해 보기(해석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
-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장에서 키워드를 밑줄 치거나 빈칸으로 만들기
- 글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며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 대비

3) 문법과 어휘 변형 가능성

- 문장 구조 분석에 더하여 어법 문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
- 지문의 주제와 맥락을 생각하며 주요 어휘 체크

2 수행평가 대비 학습

“제시된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라!”

■ 학교마다 수행평가는 상이하다!

- 대다수의 학교가 쓰기, 말하기(간혹 듣기)를 중점으로 수행평가 실시

■ 듣기 평가

- 전국단위 듣기평가로 수행평가 대체(영역별 학습법에서 듣기 부분 참고)

■ 쓰기 평가

- 쓰기는 Essay, Free Writing, Portfolio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됨
- 따라서 평가 유형에 따라 제시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 분량, 기한, 철자, 문법, 내용 구성 등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킬 것
- 번역기를 활용하되 철저히 한영/영한을 변환하여 문장을 확인하며, Grammary와 같은 문법 교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장을 다듬을 것

■ 말하기 평가

- 영어 말하기 평가 또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 Accuracy, Fluency, Attitude뿐 아니라 시간과 내용 요소 등을 고려할 것
- 평가 전 연습 시 녹음 또는 녹화를 통해 스스로 Feedback을 줄 것

3 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대비 학습

■ 상위권

영어의 듣기 문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와 어법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므로 어휘와 어법 문제를 잘 풀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글을 통해 어휘력을 늘리되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와 비슷한 형태의 어휘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늘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 요약 등의 비중이 높은 문제들 또한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분석보다는 핵심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는 수능 심화 어휘를 학습하고, 특히 잘 외워지지 않은 어휘만 선별해서 공부해야 한다. 구문 학습은 지문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한두 문장을 따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구문독해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실전과 동일하게 45문항 1세트를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되, 평소에는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 중위권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습해야 한다. 자신이 잘 틀리는 문제 유형을 찾아내고, 그 유형을 집중해서 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문제 풀이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한다. 자신이 틀린 문제를 모아 놓은 오답 노트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하위권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 많은 문장을 읽는 것보다는 좋은 문장, 어려운 문장 몇 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문 독해가 익숙하지 않을 때 많은 문장을 읽는 것은 어렵기만 하고 학습 효과가 적다. 따라서 많은 문장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정말 좋은 문장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문 독해 실력이 쌓이고, 구문 해석이 익숙해진 다음에 많은 문장을 읽는 학습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단어와 구문 학습 후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오류는 단순히 ‘많이 풀어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풀어 본다고 해서 수능 영어 문제를 70분 안에 모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대의파악 유형의 경우, 유형별 풀이법을 익히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세부사항 파악 유형의 경우, 극적인 시간 단축은 어려울지라도 풀이 요령을 익히면 보다 빠르게 풀 수 있다. 빈칸 추론, 간접쓰기 유형 등은 빠르게 풀 수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대의파악과 세부사항 파악 유형을 풀면서 절약한 시간을 투자해 정확히 풀어야 한다.

■ 하위권

어휘력과 듣기 실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고난도 유형인 빈칸 문제와 쓰기 문제 보다는 나머지 유형의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어, 구문 독해, 리딩스킬, 실전 모의고사 순서로 학습 단계를 높여 가야 한다. 단계별로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단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암기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 말장난을 이용한 연상만으로 단어를 외우게 되면 처음에는 잘 외워질지라도 나중에는 단어 뜻은 기억이 안 나고 연상만 생각나거나, 그 동안 외운 연상이 헛갈리게 된다. 어원만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하나의 어원으로 여러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어원이 적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묶어서 암기할 수는 없다. 단어 뜻을 표현한 그림, 말장난을 이용한 연상, 여러 단어를 엮어서 만든 스토리, 어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단어별로 최적화된 암기법으로 외워야 단어를 빠르게 외우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2_교과편(영어과)

2021학년도 대수능(2020년 11월 시행) 영어 연계 분석 / 배점 / 풀이 순서 예시

번호	유 형	EBS연계교재	배점	풀이 순서 예시
1	담화의 목적 추론하기	수능특강 영어듣기	2	듣기 중 1. 선택지가 영어인 경우 반드시 듣기 시작 전에 선택지 읽기 2. 계산은 메모 필수 3. 짧은/긴 응답도 메모 필요하며 듣기 전 선택지를 읽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4. 긴 응답/상황에 맞는 말이 난도가 높은 문항이므로 독해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듣기 3점 > 읽기 2점) 5. 16-17은 1번만 듣고 2개 문제 모두 풀 수 있도록 연습 필요
2	대화자의 의견 추론하기		2	
3	대화자 간의 관계 추론하기		2	
4	그림의 내용과 일치여부 판단하기		2	
5	대화 후 할 일 파악하기		2	
6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2(3)	
7	행위의 이유 파악하기		2	
8	언급되지 않은 것 파악하기		2	
9	담화: 일치하지 않는 정보 파악하기		2(3)	
10	표에서 선택할 물건/항목 고르기		2	
11	짧은 대화 응답 파악하기	수능완성 실전편 듣기	2	
12	짧은 대화 응답 파악하기		2	
13	긴 대화: 여자의 응답 파악하기		3	
14	긴 대화: 남자의 응답 파악하기		3	
15	상황에 맞게 할 말 파악하기		3(2)	
16	담화의 주제 추론하기		2	
17	언급되지 않은 것 고르기		2	
18	글의 목적 추론하기(편지, 이메일)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간접 연계/비연계	2	듣기 중 / 듣기 후
19	심경 변화 추론하기(네러티브)		2	
20	주장 추론하기		2	
21	밑줄 표현이 의미하는 바 추론하기		2	
22	요지 추론하기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간접 연계 혹은 비연계	2	안내문 (불)일치 문항 후 풀이 시작
23	주제 추론하기		2(3)	
24	제목 추론하기		2	
25	도표 또는 표의 내용 불일치		2	
26	내용 불일치(인물 또는 다른 대상)		2	
27	내용 불일치(안내문)		2	
28	내용 일치(안내문)		2	
29	밑줄 어법		3	
30	밑줄 어휘		3(2)	
31	빈칸 추론(단어)		2	31번~42번까지 페이지 문항 번호 순서대로 풀이 1. 첫 문장 직독직해 후 어렵다면 pass하고 다음 문항 풀이 2. 목표 등급에 따라 3점 문항에 시간을 배분할지 고민/결정
32	빈칸 추론(구)		3(2)	
33	빈칸 추론(긴 어구)		3	
34	빈칸 추론(긴 어구 또는 절)		3	
35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2	
36	글의 순서 고르기		2	
37	글의 순서 고르기		3(2)	
38	문장의 위치		2	
39	문장의 위치		(3)	
40	요약문 완성		2	
41	1지문 2문항: 제목	비연계	2	1. 대의파악 풀이 후 풀이 시작 2. 41~42번 보다 쉬움. 꼭 풀어야 함.
42	1지문 2문항: 밑줄 어휘		3	
43	1지문 3문항: 글의 순서		2	
44	1지문 3문항: 지칭 추론		2	
45	1지문 3문항: 내용 불일치		2	

풀이 순서 예시: 듣기 중 26~28 → 25 → 18~19 → 20 ~ 43-45 ~ 40 → 못 푼 문항 다시 풀기

■ 대수능 듣기/말하기 유형별 문제 풀이 전략/요령

문항 번호	유 형	문항 특징 및 풀이 전략/요령
1	담화의 목적 추론하기	자기소개-담화 내용 소개-목적 언급, 화자와 청자의 관계 파악 중요, 목적은 중후반부에 주로 제시됨. 요청/공지/안내/건의/제안 등
2	대화자의 의견 추론하기	대화의 중반부부터 남자/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의견의 세부 내용(근거)을 묻는 형태가 일반적임. 중반부부터 의견을 제시하는 남자(여자)의 말에 주목
3	대화자 간의 관계 추론하기	남녀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어휘를 들으며 직업 파악 후, 두 사람의 관계 추론, 최근은 구체적인 직업이 선택지로 제시됨.
4	그림의 내용과 일치여부 판단하기	위치, 모양(무늬), 수량, 인물의 행동 등이 평가 요소임 위→아래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선택지 제시
5	대화 후 할 일 파악하기	1. 남녀 혹은 남(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2. 중후반부에 상대를 위해 할 일을 언급함(부탁하는 경우도 있음)
6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1. 반드시 메모해야 함(종류, 수량, 가격, 구입 여부) 2. 대화의 말미에 할인율이 제시되는 데 할인율이 10%이고 할인된다면 그 전까지 총액의 0.9를 곱할 것!
7	행위의 이유 파악하기	1.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게 보통인데 '~'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못한다고 답하는 것이 대화의 흐름임 2. 왜 못하는지는 대화의 중후반부에 나옴
8	언급되지 않은 것 파악하기	1. 행사/축제/대회 등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2. 언급된 것부터 제거하며 언급되지 않은 것 파악 3. 보통 대화의 초중반부에는 언급된 것이 제시됨.
9	담화: 일치하지 않는 정보 파악하기	1. 행사/축제/대회 등이 소재이며 담화의 형태임. 2. 한 문장 단위에서 1개의 선택지 정보를 제시하며, 들리는 순서에 따라 선택지를 1번~5번으로 구성함.
10	표에서 선택할 물건/항목 고르기	1. 물품 특성 3~4개(가격은 거의 필수정보) 제시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차례대로 제거하면서 구입할 것 찾기 2. 자주 나오는 핵심 표현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함.
11	짧은 대화 응답 파악하기	1. 대화의 길이 짧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듣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유형이며, 듣기 전 반드시 선택지를 모두 읽어 두어야 함.
12	짧은 대화 응답 파악하기	2. 11번은 의문문에 대한 대답, 12번은 평서문에 대한 대답 3. 평소 선택지를 읽으며 대화 상황이나 마지막 말 이전 말을 추론하는 연습이 필요함.
13	긴 대화: 여자의 응답 파악하기	1. 대화의 초반부는 상황을 제시하고 중반부부터 대화의 주제가 제시되고 후반부에 나올 조언/제안/확인/의견/동의 등의 의사소통 기능 표현이 담긴 경우가 보통임.
14	긴 대화: 남자의 응답 파악하기	2. 3점 문항으로 평소 꾸준한 연습이 필수적임. 선택지를 보면서 마지막 말이나 대화의 주제/상황을 역으로 추론하는 연습 강추!
15	상황에 맞게 할 말 파악하기	담화에서 2명 간에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말을 할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6	담화의 주제 추론하기	1. 2번 들려주는데, 1번만 듣고도 주제와 언급되지 않은 것을 파악한다면 대성공! 주제는 담화 초반부에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중반부 이후부터는 주제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나열되는 구성임.
17	언급되지 않은 것 고르기	2. 언급되지 않은 것은 8번 문항과 비슷하게 접근하여 파악. 3. 1번만 듣고 풀었다면 과감히 18~19번, 25~28번 문항을 풀기!

02 교과편(영어과)

문항 번호	유 형	문항 특징 및 풀이 전략/요령
18	글의 목적 추론하기(편지, 이메일)	1. 도입부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일반적인 내용 제시하며 중반부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목적을 말하는 경우가 다수임. 혹은 문제 상황-문제의 심각성-해결 필요성-제안/건의/개선 요청의 구조도 자주 나오는 구성임. 2. 작자와 독자의 관계 파악 중요, 요청/공지/안내/건의/제안 등
19	심경 변화 추론하기(네러티브)(심경 혹은 분위기)	1. 심경 변화: 글의 중반부에 있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파악 2. 심경(~ and ~)이나 분위기가 나오기도 함 3. 글의 상황(사건, 갈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주=중요함. 4. 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임.
20	주장 추론하기	1. 작가가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의 '논설문'의 구성을 뒀. 2. 강한 당위/의무 표현을 주목해야 함. (명령문, must/should/have to~/important, necessary 등) 3. 중후반부에 주장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보통임.
21	밑줄 표현의 의미 추론하기	1. 2점 문항 중에서는 가장 어려움. 밑줄 표현은 상징/비유/함축적인 표현으로 글의 주제(핵심 내용)와 밀접함. 2. 주제나 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고, 선택지를 밑줄 부분에 넣었을 때 글의 흐름이 가장 논리적인 것을 골라야 함. 3. 이제까지 EBS 연계 교재에서 직접 연계된 적은 1번도 없음.
22	요지 추론하기	1. 제목: 주제를 비유/상징/함축적으로 표현 (영어 명사구, A:B +@ 형태/의문문/명사구 등) 2. 주제: 필자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핵심어 2~3개 결합 어구) (영어 명사구, N 전치사+@ 형태) 3. 요지: 주제+필자의 견해/관점/가치관(가치판단/주관성 포함) (우리말 문장, ~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다 등) 4. 주장: 필자가 독자를 설득('의무/금지' or '중요/필수'가 나타남)
23	주제 추론하기	----- 제목: 디지털 문해력: 창의성 계발의 열쇠 주제: 창의성 계발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 요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주장: 창의성 계발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4	제목 추론하기	- 숲을 보며 핵심어 파악을 우선해야 하며, 주제문을 찾아야 함. - 문단 구성/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임.(주제+예시//보편적상식-반전-주제//예시1+예시2-일반화(주제)//문제제기-해결 등) - 간접 연계되는 유형으로 폭넓은 독서가 필요함.
25	도표 또는 표의 내용 불일치	1. 그래프나 표가 직접 연계되며 '수량 비교/대조, 증감, 최대/최소값, N배(배수 사), 순위(서수+최상급) 등이 평가 요소임. 2. 거의 3~5번 중 하나가 답, 자신 있게 5번부터 접근하는 것을 추천
26	내용 불일치(인물 또는 다른 대상)	1. 공적이 있는 인물의 출생, 유년/청소/중장년기 생애를 다룬 글 2. 1개 문장당 선택지 1개 정보를 제시하며 글에서 정보를 제시한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동일함 3. 선택지 읽고 지문 해당 부분 읽는 방식으로 5번 선택지부터 읽고 문항 풀이할 것(대부분 답은 3~5번 중 하나임)
27	내용 불일치(안내문)	1. 행사/축제/대회 등이 소재이며 안내문의 형태임. 2. 한 문장 단위에서 1개의 선택지 정보를 제시하며,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선택지를 1번~5번으로 구성함.
28	내용 일치(안내문)	3. 선택지 읽고 지문 해당 부분 읽는 방식으로 5번 선택지부터 읽고 문항 풀이할 것(대부분 답은 3~5번 중 하나임)
29	밑줄 어법	어법=독해의 기본. 기출 어법 학습/정리=독해 역량 신장 첫걸음 [붙임1] 2014 2022 6/9모 대수능 어법 정리 내용 참조
30	밑줄 어휘	어휘=영어학습의 기본. 기출 어휘 학습/정리=영어 실력 신장 첫걸음 [붙임2] 2014 2022 6/9모 대수능 어휘 정리 내용 참조

문항 번호	유 형	문항 특징 및 풀이 전략/요령
31	빈칸 추론(단어)	# 빈칸의 위치에 따른 단락의 구성 방식 및 근거(꼭 참고할 것) 빈칸의 위치가 앞? ⇨ 빈칸=주제, 두괄식 구성의 단락 2. 빈칸의 위치가 뒤? ⇨ 빈칸=결론, 미괄식 구성의 단락 3. 빈칸의 위치가 중간? ⇨ 빈칸=주제이거나 주제의 근거, 빈칸 뒤에 빈칸의 근거 有
32	빈칸 추론(구)	★ 최근 빈칸의 위치가 뒤 혹은 중간에 오는 경우가 多 # 빈칸의 길이에 따른 문항 난도 예견 및 풀이 전략
33	빈칸 추론(긴 어구)	1. 빈칸=1개 단어, 2~3개 단어 어구? ⇨ 보통 2점, 글의 핵심어 찾기 연습 필요 2. 빈칸=4~7개 단어 어구? ⇨ 명사구이면 글의 주제, 동사구이면 controlling idea 3. 빈칸=8개 단어 이상의 긴 어구나 절? ⇨ 매번 3점, 정답률 낮은 고난도 문항
34	빈칸 추론(긴 어구 또는 절)	★ 꼭 빈칸이 들어간 문장과 앞뒤 문장부터 먼저 '제대로/정확히 그러나 빠르게' 읽고 '무엇을 파악하고, 추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며 답을 추론하자!
35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개수=6~7개, 정답이 4번이면 3번과 5번이 논리적/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 사이에 주제와 관련이 없는 4번 문장이 들어간 것임.
36	글의 순서 고르기	1. 응집성 장치-연결사(역접,인과,예시,추가/유사/환언), 지시어, 논리적 관계 2. 글 (C)부터 읽는 것을 추천, (A)-(C)-(B)가 답인 경우는 없음, 주어진 글→(C) 순서로 읽고 논리적 공백이 있다면 주어진 글 다음에는 (B)가 온다고 가정하고 (B)와 (A)를 읽으면서 순서 파악
37	글의 순서 고르기	3. 2개 중 하나는 거의 EBS 교재 지문 거의 그대로 활용함. 1학기 중간/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도 글을 4부분으로 나누어 구조화하는 연습 필요
38	문장의 위치	1. 어법/어휘/빈칸만큼 어려운 문항으로 3점 문항으로 꼭 출제됨. 2. 응집성 장치-연결사(역접,인과,예시,추가/유사/환언), 지시어, 논리적 관계
39	문장의 위치	3. 정답이 3번이면 2번과 4번은 논리적/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논리적 비약이 있음. 최근에는 주어진 문장의 뒤에 연결사나 지시어가 제시된 경우가 많은 편임.
40	요약문 완성	1. 보통 실험/연구의 지문 사용, 요약문 빈칸 (A)와 (B)는 글의 핵심어임 2. 요약문 읽고 지문 읽되(빈칸 추론과 방법 동일), 실험/연구의 결과/시사점이 나온 부분을 주목해야 함.(초중반부-실험/연구 목적/개요, 실험/연구 과정, 후반부-실험/연구 결과와 시사점/의미)
41	1지문 2문항: 제목	1. 풀이 순서: 42번 어휘 → 41번 제목
42	1지문 2문항: 밑줄 어휘	2. 어휘는 3점 문항이며 보통 밑줄 어휘 바로 전/뒤 문장에 근거 제시함. 3. 이제까지 EBS 연계 교재에서 직접 연계된 적은 1번도 없음.
43	1지문 3문항: 글의 순서	1. 풀이 순서: 44번 지칭추론 + 45번 불일치 → 43번 글의 순서 2. 글 (D)부터 읽는 것을 추천, (B)-(D)-(C)가 답인 경우는 없음, 주어진 글→(D) 순서로 읽고 논리적 공백이 있다면 주어진 글 다음에는 (C)가 온다고 가정하고 (D)와 (B)를 읽으면서 순서 파악 (A)-(D)-(C)-(B)의 순서로 읽기
44	1지문 3문항: 지칭 추론	3. 44번 풀이 시 (a)~(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약자로 표시하고, 45번 역시 선택지 제시 순서는 글의 제시 순서와 동일함을 염두에 두고 45번 선택지 판단할 것
45	1지문 3문항: 내용 불일치	4. 41~42번에 비해 3문항 합산 점수는 2점이 높으며 시간도 적게 걸림. 반드시 꼭 풀기 위해서는 풀이 순서를 바꾸거나 시간을 따로 안배해야 함!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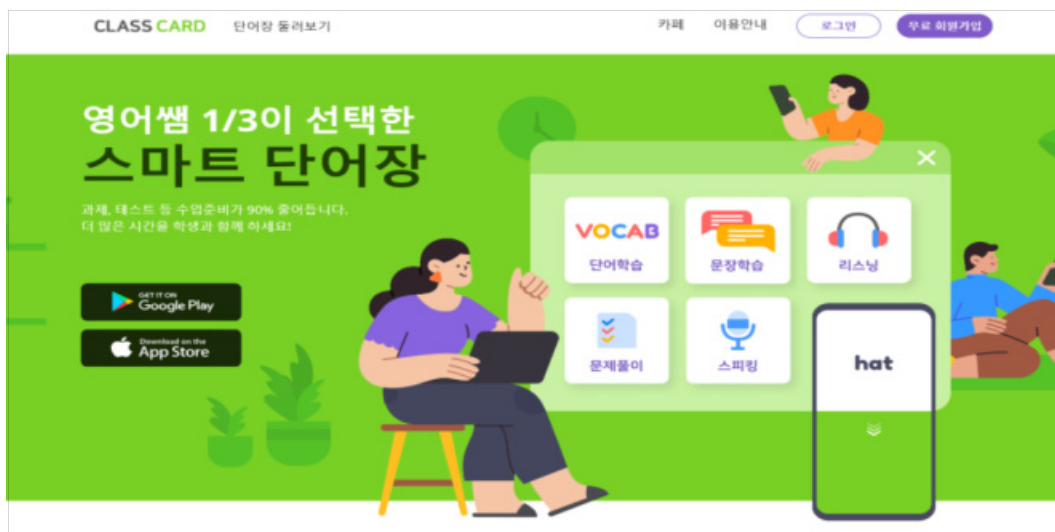
영어과 학습코칭 관련 사이트 안내



1 클래스 카드

<https://www.classcard.net/> 

(영어 교과서 및 수능/연계 교재 어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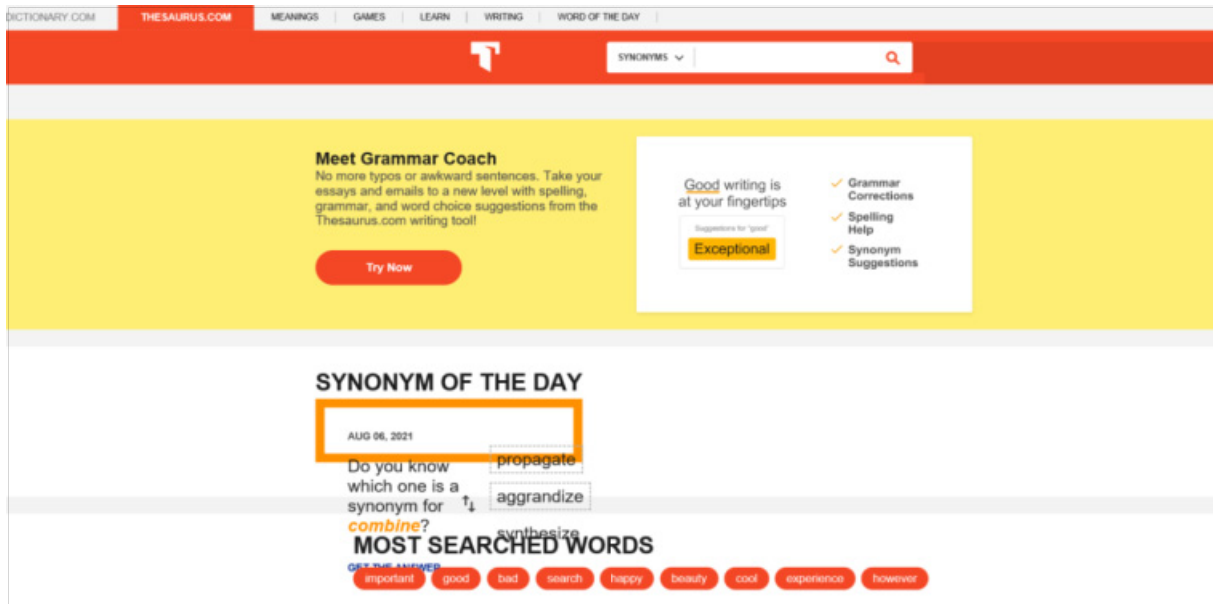
2 영어 예문 학습

<https://www.lextuto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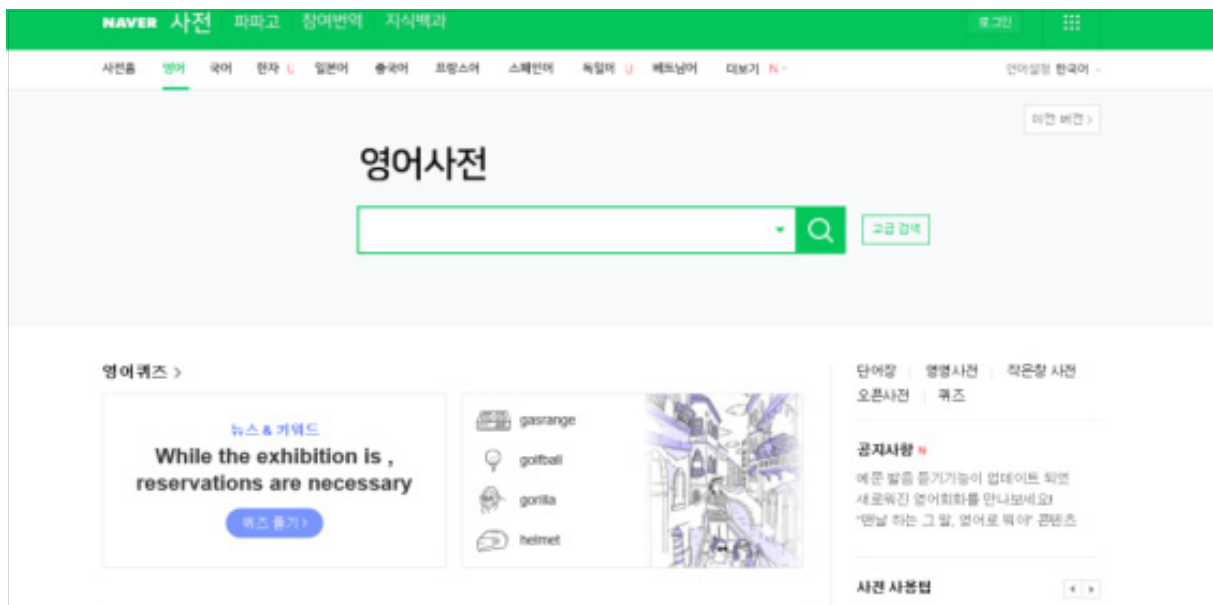
3 영어 동의어/반의어 사전

<https://www.thesaurus.com>




4 네이버 영어 사전

<https://en.dict.naver.com/#/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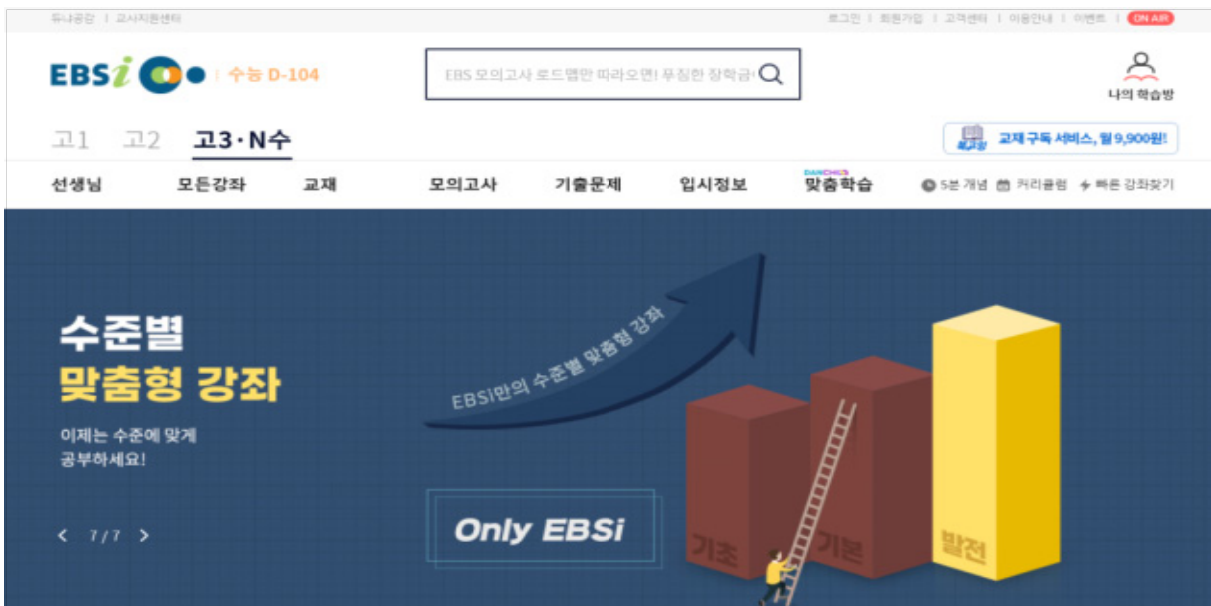
5 네이버 파파고

<https://papago.naver.com/> 
(번역기, 서논술형 평가 등에 활용)



6 EBSi

<https://www.ebsi.co.kr/ebs/pot/poti/main.ebs> 
기출 문제, 대수능 분석, 어휘/문법/독해/듣기(말하기) 강좌



7 황인영 영어카페

<https://cafe.naver.com/maljjang2> 
(각종 영어 학습 자료 다수)

03

부 록

- I. 국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 II. 수학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 III. 영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국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국어 교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

학교명		소속	()학년 ()반 ()번
이름		휴대폰 번호	

1. 학습드림코칭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현재 국어 교과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3. 자신이 국어 교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을 적어주세요.

4. 학습코칭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
(도움을 받고 싶은 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등)

[illegible]

국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 파일 다운





수학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 설문지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수학공부를 하거나 일상에서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수학공부에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수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여러분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 설문조사는 수학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조사결과가 공개되거나 성적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학년 ()반 ()번 성명 ()

◆사전검사(1)~(7)◆

()안에 숫자를 쓰거나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나는 매일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는 편이다.-----그렇다(), 그렇지않다()
- (2) 나는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다.-----그렇다(), 그렇지않다()
- (3) 나는 하루에 자기주도적으로 수학공부를 ()시간 한다.
- (4) 나는 수학학습에 관련된 상담을 ()회 받아 본 경험이 있다.
- (5) 나는 현재 수학 수업의 진도보다 선행학습을 한 상태이다.-----그렇다(), 그렇지않다()
- (6) 나의 금년 평균 내신수학성적은?
20점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이상()
- (7) 나는 매일 핸드폰(유투브, SNS 등)을 ()시간 한다.

1부(수학학습심리) --- 해당칸에 V표시

번호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학 정서 불안	나는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편이다.					
2		나는 이전에 배운 수학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나는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나는 수학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할 수 있다.					
5		나는 수학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한다.					
6		나는 수학 시험이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진다.					
7		수학은 학습량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8		나는 수학 수업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하다.					
9		나는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왠지 불안하다.					
10		나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혹은 과외)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뒤떨어질까 봐 불안하다.					
11	수학 교과 태도	나는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수학이 나의 진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수학문제 푸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수학 점수가 목표한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수학공부 하는 것을 좋아한다.					
15		나는 복잡한 수학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고 ()학년 ()반 ()번 성명 ()

2부(수학학습방법) --- 해당칸에 V표시

번호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수학 학습 자기 관리	나는 수학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7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공부를 한다.					
18		나는 수학공부를 계획한 대로 꾸준히 공부한다.					
19		나는 수학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고 집중하려 노력한다.					
20		나는 수학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시작한다.					
21	수학 학습 전략	나는 수학문제를 푼 후 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한다.					
22		나는 틀렸던 수학문제는 나중에 다시 풀어본다.					
23		나는 수학문제를 풀다 틀린 경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24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5		나는 새로운 수학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풀어보았던 비슷한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한다.					
26		나는 수학문제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27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본다.					
28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예습을 복습보다 더 많이 한다.					
29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본다.					

3부(개인적학습성향) --- 해당칸에 V표시

번호		질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수학 학습 성향	나는 문제 풀이 위주로 수학공부를 한다.					
31		나는 수학적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를 푼다.					
32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 풀이과정을 자세하게 쓰면서 푼다.					
33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목표량을 정해놓고 푼다.					
34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35		나는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한다.					
36		나는 수학수업을 모둠활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					
37		나는 잘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수학 내용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영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학생용]

영어교과에 대해 본인이 평소 생각하거나 느끼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영어 학습코칭상담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학년 ()반 이름()



1 자기 진단

1.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를 선택한 경우, 1-1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②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③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④ 기타 : _____

1-1. 현재 어떤 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나요?

[답변] : _____

2. 직전 학기 교내 영어 내신성적은?

- ① 1~2등급 ② 3~4등급 ③ 5~6등급 ④ 7등급 이하 ⑤ 기억이 나지 않음

3. 자신이 원하는[목표로 하는] 교내 영어 내신성적은?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⑦ 7등급 ⑧ 8등급 ⑨ 모르겠음

4.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성적은?

- ① 1~2등급 ② 3~4등급 ③ 5~6등급 ④ 7등급 이하 ⑤ 기억이 나지 않음

5. 자신이 원하는[목표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성적은?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⑦ 7등급 ⑧ 8등급 ⑨ 모르겠음

6. 영어 공부를 하다 슬럼프가 온[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①을 선택한 경우, 6-1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네 ② 아니요

6-1. 언제, 왜 그랬던 것 같나요?

[답변] : _____

7.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8. 학습드림코칭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II 자기주도적 학습

9. 학교나 학원 수업시간 외에 혼자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하루 1시간 이하 ② 하루 1~2시간 ③ 하루 2~3시간
 ④ 일주일에 1~2시간 ⑤ 일주일에 2~3시간 ⑥ 일주일에 3~4시간
 ⑦ 기타 : _____

10. 혼자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복수응답 가능)

- ① 학교나 학원 숙제 ② 학교나 학원 수업 복습 ③ 학교나 학원 수업 연습
 ④ 인터넷 강의 듣기 ⑤ 독해 문제집 풀기 ⑥ 어휘 암기
 ⑦ 어법 공부 ⑧ 기타 : _____

11.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 또는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답변] : _____

12. 현재 공부하고 있는 영어 교재[문제집, 참고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_____

13. 끝까지 읽은 영어 원서나 영어 관련 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14. 영어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 : _____

15. 영어 어법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 : _____

16. 영어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 : _____

III 영어 수업시간 활동

17. 학교 영어 수업시간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18. 학교 영어 수업시간 중 칭찬을 받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19. 학교 영어 수업시간 중 가장 자신이 없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 _____

영어과 학습코칭 사전 설문지 파일 다운





2021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가이드북

발간번호	인천교육-2021-0134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총괄	중등교육과 이병욱 과장
기획	중등교육과 김수정 장학관 중등교육과 최석주 장학사 중등교육과 장혜정 파견교사
집필위원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 지원단 9명 국어과(인천해양과학고 교사 문장혁, 광성고 교사 이동구, 인천송천고 교사 배은진) 영어과(미추홀외국어고 교사 배경환, 대인고 교사 이윤승, 연평고 교사 양우식) 수학과(인일여자고 교사 이병진, 인천중산고 교사 전아정, 인천초은고 교사 한은정)
검토위원	인화여자고 교사 김도연, 학익고 교사 고석영

※ 이 자료집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중등교육과-부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집은 학습드림코칭 자료로 활용하고,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인용·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